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ERVICE ACTIVITIES OF A CHURCH
ON THE IMAGE AND EVANGELISM OF THE CHURCH:
A CASE STUDY OF MYOUNG-GOK CHURCH IN CHANGWON, KOREA**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교회 이미지와 전도에 미치는 영향:
창원 명곡교회를 중심으로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ang Young Lee (이 상 영)

Lynchburg, Virginia

May 2017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Sungtaek Kim
Director, Korean Ministries
Assistan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ERVICE ACTIVITIES OF A CHURCH ON THE IMAGE AND EVANGELISM OF THE CHURCH: A CASE STUDY OF MYOUNG-GOK CHURCH IN CHANGWON, KOREA

Sang Young Lee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7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social service activities of the church on the image and evangelism of the church in the community, and to find a method of spreading the Gospel effectively. Various causes for the stagnation of Korean church are mentioned and discussed, but it is determined that the most fundamental reason is the dilution of the essence of the church. Thus, this researcher will reveal the appropriateness of “the doctrine of the local church” by summing up the doctrine of the church appearing in the flow of history based on the biblical doctrine of the church and by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 doctrine.

This researcher carried out social service activities from the first year of his appointment in Myung-gok Church until the present and found that the local residents’ evaluations of the church improved, which helped improve evangelism and led to bearing fruit for church revival. Consequently, the researcher will investigate the pivotal role of the church’s social service activities and how they play into the image and evangelism of the church. The researcher hopes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eager pastors through a social service activities program and its manual.

Abstract length: 196 words

ABSTRACT

초록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ERVICE ACTIVITIES OF A CHURCH ON THE IMAGE AND EVANGELISM OF THE CHURCH: A CASE STUDY OF MYOUNG-GOK CHURCH IN CHANGWON, KOREA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교회 이미지와 전도에 미치는 영향: 창원 명곡교회를 중심으로

Sang Young Lee (이상영)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7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본 연구는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와 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이를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교회의 침체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거론, 조명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본질에 대한 회색에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경적인 교회론을 근거로 시대적 흐름 속에 나타난 교회론을 정리하고, 그 교회론을 분석, 종합하여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지역 교회론”의 당위성을 밝히려 한다.

특히 본 연구자는 정체가었던 명곡교회에 부임하여 14년간 섬기며 경험했던 교회의 부흥이, 지역을 위한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교회의 이미지 쇄신에 근거한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가 명곡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던 첫해부터 현재까지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으며,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그 결과로 교회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교회 이미지와 전도에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연구하여, 지역교회를 열망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다.

초록 길이: 149 words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D.Min. 모든 과정속에서 열은 이론적인 배경에 깊이를 더해주시고, 논문을 심사하시며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이유정 교수님과 김성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에 집중,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또 지역교회에 대한 부족한 목사의 목회적 소신에 전적으로 함께하시고 함께 달려준 명곡교회 김수중, 노명현, 오재형, 김명철, 박태영, 이금용, 신정수, 전용익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고, 설문조사 및 자료연구 조사 등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워준 명곡교회 강명호 목사를 비롯한 부교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자료정리와 워드작업에 진력해준 김상현 목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어도 되는 그런 지역을 꿈꾸며, 가로등을 세워 가는 소중한 일에 이 부족한 목사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랑하는 모든 명곡교회 성도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 평생의 멘토이시며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저를 목사 만들어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신 조서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동역자, 나의 3남매를 든든히 세워준 나의 세 아이들의 엄마, 나의 우지영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석과 같은 나의 아이들, 주은이, 주경이, 주현이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새벽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주신 나의 자랑이요 사랑이신 두분 어머니 김명인 집사님과 조영자 권사님께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며 부족한 종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S	viii
감사의 글	
TABLES	xvii
표	
FIGURES	xx
그림	
ABBREVIATIONS	xxi
약어	
SUMMARY	xx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Statement of the Problem	1
문제제기 진술	
2. Statement of Scope and Limitation	3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진술	
3. Biblical and Theological Basis	3
성경적 신학적 근거	
4. Method of the Study	4
연구방법	
5. Review of Literature	6
문헌검토	
CHAPTER 2: Church and Local Church	11
제 2 장: 교회와 지역교회	
1. Church in the Old Testament	11
구약성경에 나타난 교회	

1) Church of Kahal (קהל).....	11
카할(קהל)의 교회	
2) Church as Edhah (עדה)	14
에다(עדה)로서의 교회	
3) Church as a Meeting of God’s People	16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2. Ecclesiology in Paul’s Epistles in the New Testament.....	16
신약성경의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론	
1) Ecclesia (ἐκκλησία).....	17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2) Pauline Ecclesiology.....	18
바울의 교회론	
3. Roles of the Church in Each Age	22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	
1) Early Church.....	22
초대교회	
2) Medieval Church	25
중세교회	
3) Church in the Reformation Era	27
개혁주의 시대의 교회	
4. Doctrine of the Local Church.....	34
지역교회론	
1) Biblical Basis of the Local Church.....	35
지역교회의 성경적 근거	
2) Relation between Local Community and the Church.....	38
지역사회와 교회와의 관계	
CHAPTER 3: Study on the Changwon Region.....	46
제 3 장: 창원 지역 연구	
1. Historical Study.....	46
역사적 연구	

2. Geographical Study	47
지리적 연구	
1) Geographical overview	47
지리적 개요	
2) Major Places Located near the Church	50
교회 주변에 위치한 주요 장소	
3. Economic Study.....	52
경제적 연구	
1) Introduction to the Economy and Industry of Changwon.....	52
창원의 경제와 산업의 개요	
2) Economic Characteristics of Myeongseo-dong, Uichang-gu and Myeongseo Traditional Market	55
의창구 명서동의 경제적 특징 및 명서전통시장	
3) Impact of the Present Economic State of Myeongseo-dong on Myung-gok Church.....	56
명서동의 경제현황이 명곡교회에 미치는 영향	
4. Study of Religions	57
종교적 연구	
1) Religions of Korea	57
한국의 종교현황	
2) Biggest Reason for Not Having a Religion.....	58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3) Analysis Through the Present State of Religion according to Areas	60
지역별 종교 현황을 통한 분석	
4) Utilization of Weekends and Holidays by People 13 Years or Older	63
13세 이상 인구의 주말, 휴일 여가활용	
CHAPTER 4: Survey of Local Residents and Its Results	66
제 4 장: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Frequency Analysis	66
빈도 분석	
1) How Old Are You?	66
당신의 나이는 몇 세인가?	

2) What Is Your Sex?	67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	
3) What Is Your Religion?	67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	
4) What Do You Think Represents Myeongseo-dong, Changwon?	68
창원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5) What Building or Organization Do You Think Is Best Known in Myeongseo-dong, Changwon?	69
창원 명서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물이나 단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6) What Do You Think Is Most Needed in Myeongseo-dong, Changwon?	70
현재 창원 명서동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7) What Do You Think Is Church's Most Important Role for the Community?	71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8) Do You Know about Myung-gok Church in Myeongseo-dong, Changwon?	72
창원시 명서동의 명곡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9) Do You Know Any Program that Myung-gok Church Offered for the Community?	73
명곡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 아는 것이 있는가?	
10) Have You Participated in Any program that Myung-gok Church Offered for the Community?	74
명곡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11) Please Mark You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Program that Myung-gok Church Offered for the Community	75
명곡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 를 표시하라	
12) What Contributions Do You Expect Myung-gok Church to Make to the Community in the Future?	76
명곡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가?	
2. Cross-tabulation.....	78
교차 분석	

1) Cross-tabulation of What Each Age Group Thinks Represents Myeongseo-dong	78
나이대별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교차 분석표	
2) Cross-tabulation of What Insitutions and Organizations Each Age Group Thinks Best Known in Myeongseo-dong	79
나이대별 명서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관단체 교차 분석표	
3) Cross-tabulation of What Local Needs of Myeongseo-dong There May Be according to Each Age Group.....	80
나이대별 명서동 지역필요에 대한 교차 분석표	
4) Cross-tabulation of What Roles Each Age Group Thinks Churches Should Play for the Community	81
나이대별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야 할 역할 교차 분석표	
5) Cross-tabulation of Whether or Not Each Age Group Knows about Myung-gok Church	82
나이대별 명곡교회에 대해서 아는지의 여부 교차 분석표	
6) Cross-tabulation of Whether or Not Each Age Group Knows Any Program that Myung-gok Church Offered	83
나이대별 명곡교회가 진행한 프로그램을 아는지의 여부 교차 분석표	
7) Cross-tabulation of Whether or Not Each Age Group Has Participated in Any Program that Myung-gok Church Offered	84
나이대별 명곡교회가 진행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교차 분석표	
8) Cross-tabulation of the Satisfaction Level of Each Age Group's Participation	85
나이대별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에 대한 교차 분석표	
9) Cross-tabulation of What Kind of Contributions Each Age Group Expects Myung-gok Church to Make to the Society	86
나이대별 명곡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길 바라는 부분 교차 분석표	
10) Cross-tabulation of What May Represent Myeongseo-dong according to Religion	87
종교에 따른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교차 분석표	
11) Cross-tabulation of Wha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May Be Best Known in Myeongseo-dong according to Religion.....	88
종교에 따른 명서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관단체 교차 분석표	

12) Cross-tabulation of Local Needs of Myeongseo-dong according to Religion	89
종교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13) Cross-tabulation of What Roles Religions Should Play for the Local Community according to Religion	90
종교에 따른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야 할 역할 교차 분석표	
14) Cross-tabulation of Whether or Not One Knows about Myung-gok Church according to Religion	91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에 대해서 아는지의 여부 교차 분석표	
15) Cross-tabulation of Whether or Not One Has Participated in Any Program that Myung-gok Church Offered according to Religion	92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가 진행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교차 분석표	
16) Cross-tabulation of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Participation in Church Events according to Religion	93
종교에 따른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 교차 분석표	
17) Cross-tabulation of What Contributions Myung-gok Church Is Expected to Make to the Society according Religion	94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가 사회에 기여하길 바라는 부분 교차 분석표	
18) Cross-tabulation of Myeongseo-dong's Local Needs according to the Role of the Church	95
교회 역할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19) Cross-tabulation of Myeongseo-dong's Local Needs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Level of Myung-gok Church	96
명곡교회 인지도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20) Cross-tabulation of Myeongseo-dong's Local Needs according to the Awareness of Myung-gok Church's Programs	97
명곡교회 프로그램 인지도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21) Cross-tabulation of Myeongseo-dong's Local Need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Myung-gok Church's Ministries	98
명곡교회 사역 참여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22) Cross-tabulations of the Area's Needs and the Recognitional Level of the Church according to Generational Support Request	99
세대별 지원요청에 따른 지역 필요 교차 분석표 및 세대별 지원요청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23) Cross-tabulation of Church's Role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Level of Myung-gok Church's Activities	101
명곡교회 행사 인지도에 따른 지역에서의 교회 역할 교차 분석표	
24) Cross-tabulation of the Recognition Level of the Church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in Church's Activities.....	102
교회 행사 참여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25) Cross-tabulation of the Roles and Recognition Level of the Church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Level from Participating in Church Activities	103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에 따른 교회 역할 교차 분석표 및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CHAPTER 5: Suggestions on the Roles of the Church toward Making the Doctrine of Local Church Real 105

제 5장: 지역 교회론의 실현을 위한 교회 역할의 제안

1. Preface	105
서언	
2. A Concrete Model for the Doctrine of the Local Church.....	105
지역 교회론의 구체적인 모델	
1) Making Myung-gok Church Known to the Local Community	106
지역 속에 명곡교회 알리기	
2) Purifying the Neighboring Community	110
인근지역 정화하기	
3) Making Allies for the Future	114
미래의 동료(Ally) 만들기	
3. Intention of the Ministries for the Local Community.....	117
지역사회 사역의 의도	
4. Suggestions.....	117
제언	
5. Directions for Myung-gok Church	119
명곡교회가 나아갈 방향	

CHAPTER 6: Conclusion..... 122

제 6장: 결론

Appendix A.....	126
부록 A	
Appendix B.....	129
부록 B	
Appendix C.....	130
부록 C	
Bibliography.....	131
참고자료	
IRB Approval.....	134
IRB 승인	

TABLES

표

표 1. 주요 교단 교세통계 현황	1
표 2. 무종교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	2
표 3. 의창구 읍면동별 인구수 현황표	49
표 4. 명서 전통시장 기본 현황	51
표 5. 명서 전통시장 시설 현황	51
표 6. 주요판매품목 현황	51
표 7. 창원시 소재 기업 업종별 생산지수	53
표 8. 창원 국가 산업단지 동향	54
표 9. 창원시 고용 현황	55
표 10. 한국의 종교 현황	57
표 11.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58
표 12. 지역별 종교 현황 및 인구	60
표 13. 13세 이상 인구의 주말, 휴일 여가활용	63
표 14. 나이	66
표 15. 성별	67
표 16. 종교 여부	67
표 17. 창원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68
표 18. 창원 명서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물 단체	69
표 19. 창원 명서동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	70
표 20.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71
표 21. 창원시 명서동 명곡교회 인지도	72

표 22. 지역사회를 위한 명곡교회 프로그램 인식 여부	73
표 23. 지역사회를 위한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여부	74
표 24. 지역사회를 위한 명곡교회 프로그램 만족도	75
표 25. 명곡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했으면 하는 분야.....	76
표 26. 나이대별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교차 분석표.....	78
표 27. 나이대별 가장 알려진 명서동 기관단체 교차 분석표.....	79
표 28. 나이대별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80
표 29. 나이대별 교회의 지역사회 역할 교차 분석표.....	81
표 30. 나이대별 명곡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82
표 31. 나이대별 명곡교회 프로그램 인지도 교차 분석표.....	83
표 32. 나이대별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교차 분석표.....	84
표 33. 나이대별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교차 분석표.....	85
표 34. 나이대별 명곡교회의 지역사회 기여 기대영역 교차 분석표.....	86
표 35. 종교에 따른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교차 분석표	87
표 36. 종교에 따른 가장 알려진 명서동 기관단체 교차 분석표	88
표 37. 종교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89
표 38. 종교에 따른 교회의 지역사회 역할 교차 분석표	90
표 39.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 인지 여부 교차 분석표	91
표 40.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교차 분석표	92
표 41. 종교에 따른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 교차 분석표	93
표 42.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의 지역사회 기여 기대영역 교차 분석표	94
표 43. 교회 역할에 따른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95
표 44. 명곡교회 인지도에 따른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96
표 45. 명곡교회 프로그램 인지도에 따른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97

표 46. 명곡교회 행사 참여에 따른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98
표 47. 세대별 지원요청에 따른 지역 필요 교차 분석표	99
표 48. 세대별 지원요청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100
표 49. 명곡교회 행사 인지도에 따른 지역에서의 교회 역할 교차 분석표	101
표 50. 교회 행사 참여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102
표 51.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에 따른 교회 역할 교차 분석표	103
표 52.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103
표 53. 명서전통시장 상인의 종교 현황	124
표 54. 명서전통시장 상인의 잠정적 그리스도인 현황	124

FIGURES

그림

그림 1. 경상남도 내에서 창원시의 지리적 위치	47
그림 2. 통합창원시의 행정구별 분류	48
그림 3. 명서동 134번지 지도	120

ABBREVIATIONS
약 어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Korean churches experienced great growth in the twentieth century, but began to decline in the twenty-first century. Several reasons for the decline may be counted, but the negative prejudice against Christianity and evangelism is one of the main reasons. Korean churches should put in the effort to reverse the tide, aided by communication with the residents where each local church is locat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social service activities of the church on the image and evangelism of the church. As a prerequisite for the stud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ccurately the doctrine of the church.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establish the doctrine of the local church,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ir biblical and theological stances, and to comprehend the church's role in the local community. As such, Myung-gok Churchin Changwon, Korea where the writer serves, is a good case study. The study examines how Myung-gok Church communicates with the community, what kind of impact the church has on the community by providing these services, and how the activities of the church have improved its image and evangelism in the area.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local church and its neighboring community. After detailing the efforts and ministries of Myung-gok Church in this context, the study also suggests next steps for the church. The author hopes to provide a rationale for positively handling the challenges that Korean churches f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APTER 2

CHURCH AND LOCAL CHURCH

The term church is found in the New Testament, but not in the Old Testament. The Old Testament contains terms such as God's people, tabernacle, and temple, which points to the meaning of today's church. This study discusses the concept of the church, focusing on three etymologies in the Bible: *kahal* (קהל), *edhah* (עדה), and *ecclesia* (ἐκκλησία).

Kahal (קהל) refers to the observation of the commandments, rules and regulations given by God, creation of a worship community, and victory over the nation's crisis with His justice. *Edhah* (עדה) denotes the supervision of military and politics, specifically the people of Israel becoming the army of God around the tent of meeting. *Ecclesia* (ἐκκλησία) signifies as a meeting of worshippers, Christians, who decide to live for Jesus Christ.

Paul understands this church as a union of Christ and believers, an organic union which can never be separated once combined. The union can also be compar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and the body. A union with Christ was possible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accordingly, the church is expected to show the one-ness and new-ness of the union through its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ministry. This is revealed through an exemplary life, conscious social service, and sacrificial help.

Ever since the church was first established in Jerusalem, it has experienced growth and decline, crisis and peace, and conflict and reconciliation, and has slowly settled itself. The early church provided services to the local community in ways that fit the age, including taking care of orphans and widows, the infirm residents of a coal-mining town, and travelers. In the medieval church period, the church actively participated in social services

through established structures, like workhouses. In the Reformation period, too, these services were ceaseless, propelled by the image of good deeds insisted on by Luth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reasons why a local church should unite with its community. Fulfilling His mission, or spreading the gospel to the local community as revealed in the Great Commission, is a responsibility given to man, God's best creation.

This world is under God's sovereignty, which means that everyone is under God's influence. A church should be able to reveal God's influence in its own area. The influence is wielded by church's the good deeds, beyond explicitly sharing the gospel message and volunteering in specific niches. The writer calls the church that embraces and influences its area a *local community church*, which should embody all churches.

A local community church can exert good influence by following several steps. First, church members should recognize the concept of a local community church. Second, they should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ir local community through analysis of practical factors like the number of households, standard of living, and income level of the area. After the analysis, church members should develop concrete programs that the church can offer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community. The church should execute the plan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maintaining a positive influence in it.

Prospective Christians are those who would choose Christianity in the future, though they currently may not subscribe to a faith. They can be drawn into the church if trust is built between the local church and the community through the church's continuous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local community church strives to prepare these prospective Christians for a life of faith, rather than demand immediate decisions for Christ from them. Myung-gok Church employs this idea of this local community church to spread the gospel.

CHAPTER 3

STUDY ON THE CHANG-WON REGION

Myung-gok Church, where the researcher serves in ministry, is located in the city of Changwon in the province of South Gyeongsam (called *Gyeongsangnam-do*), in the Myeongseo neighborhood (*Myeongseo-do*).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ity of Changwon is an important one in Gyeongsangnam-do and has developed as an industrial area representing the coun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its advantage as a port city allowed domestic companies and a variety of vendors to move in and thrive. Moreover, the region of Changwon and two additional surrounding cities, Masan and Jinhae, had a census population of more than 500,000 in 2010, and its GRDP is the largest of the primary local authorities nationwide. Myeongseo neighborhood, where the church is located, is a legal district newly established in 1986.

In a radius of one kilometer around the church, there are 5 elementary schools, 4 middle schools, and 3 high schools. In addition, Myeongseo Traditional Market, which consists of 210 shops and 409 employees and attracts many tourists annually, is located within 500 meters. Also in proximity to the church is Changwon Bus Terminal, which provides a convenient commute to many local residents.

Changwon is a planned city, meaning that each industry and neighborhood is purposefully developed; and industrial, commercial, residential and nature reserve areas are thoroughly managed. The mix of companies, too, is intentional: various large corporations (such as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STX, and LG Electronics) and small businesses cohabit Changwon. In addition, Changwon serves as a military operations area,

so a number of manufacturers of war supplies are located there, especially around the Logistics Command arm of the military.

Two-story buildings characterize the area near the church, and there are many multi-family buildings consisting of anywhere from two to six households, showing that the number of individual buildings owned is not necessarily correlated with the actual resident population. The residents run the gamut of newlyweds who are just starting families and elderly who live alone, lower income household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fact, the demographics of the members of this church are reflective of the surrounding residents.

Fewer than 20% of the Korean population belong to Protestantism (Buddhism won the faith-based plurality among the populace at about 26%). However, what is significant is that about 46% of the population counted themselves as atheists and uninterested in religion, mainly driven by disappointment by religious leaders. This difference in the figures significantly widened, about 19%, from 1997 to 2014. This result shows that people want to resolve problems by their own power in their everyday life, rather than through faith.

In a similar vein, a survey conducted in Gyeongsangnam-do revealed the ratio of Protestantism to Buddhism to be 1:5. It can be inferred that Protestantism does not leave a good impression in the area when compared with other religions. In this reality, the church needs to change the direction of evangelism by improving its image so that people who are not interested in religion become interested in the church.

CHAPTER 4

SURVEY OF LOCAL RESIDENTS AND ITS RESULTS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image and influence in the community of Myung-gok Church, where the researcher serves in ministry. Three hundred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randomly distributed to local residents living near Myung-gok Church, of which 253 were completed and returned within three week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esults and statistics of this survey. S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daytime on weekdays, a supermajority of respondents, 87.8%, was female.

First, the survey asked after people's awareness of Myung-gok Church. To the question asking what represents Myeongseo-dong, about 71% of all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it was the Myeongseo Traditional Market, followed by Myung-gok Church, which garnered 18% of the results. Categorized by age group, people in their 30s and 50s generally regarded Myeongseo Traditional Market as representative of that neighborhood, while those in their teens and 20s chose Myung-gok Church. Next, of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best known in Myeongseo-dong, 41% of respondents chose the local general hospital, Fatima Hospital, first, followed by Myung-gok Church at about 24%. Here, too, the survey found that young people in their teens to 30s that responded that they knew Myung-gok Church well, presumably because they are more interested in culture and education than medical facilities.

Furthermore, the survey asked about how much residents knew about and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carried out by the church. About 70% responded, "I am well aware," and about 19% responded, "I have heard of that." In total, at least 90% of those

surveyed responded affirmatively to this question. When asked if they knew of the programs carried out by Myung-gok Church, about 61% responded that they knew about the annual winter event, Festival of Lights, and about 55% of all the respondents participated in some capacity in it, making it the most popular program from Myung-gok church and the one through which the church could most easily fill the needs of the surrounding area.

Next, the survey asked residents what the Myeongseo-dong area needed the most. The plurality of respondents, about 38%, wished for the expansion of cultural facilities. The second choice (24%) was for culture spaces for students. Many in their 50s wished for the former and many in their 20s and 30s wished for the latter, showing that people from all age groups desire more cultural facilities.

Next, the survey asked about the role the church should play in the community. About 47% of all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it should play a role in social welfare, followed by evangelism and mission work (24%). In general, people of both genders and all ages recognized social welfare as an important function of the church.

Lastly, the survey examined what the respondents wanted out of Myung-gok Church for the community. The responses were different and more varied than other results on the same survey. About 17% of those surveyed mentioned that the church should support low-income households, while 13% advocated for support for the elderly. These answers are typically representative of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is neighborhood. There were other requests, as well, for welfare and care for pre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 meaning that the church can provide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all age groups.

CHAPTER 5

SUGGESTIONS ON THE ROLES OF THE CHURCH TOWARD MAKING THE DOCTRINE OF LOCAL CHURCH REAL

The conclusion of the survey proves that Myung-gok Church is recognized in the area and has been put in a prominent position to serve its neighbors. For Myung-gok church to reach the community, the community must first know about the church. On the fourth week of each month, church members come to Sunday services by taxi. When riding in cabs, beyond being mere passengers, church members introduce themselves to the taxi driver as connected to the church, acting with kindness and generosity so the driver comes to have a good impression of the church. In turn, this becomes a method of evangelism, spreading the church's image positively through the taxi drivers.

In addition, the church experiences growth through an arrangement with the Myeongseo Traditional Market and hospitals nearby. For example, the church bolsters sales at the market by purchasing their gift cards and campaigning for its ongoing vitalization, and introduces patients to the hospitals at low cost for medical expenses and check-ups. Both spaces open up the ability to support alienated groups. As a result, Myeongseo Traditional Market serves as an honorary ambassador to the church and community, actively participating in church events.

Second, the church intentionally aims to grow the neighborhood together by establishing core biblical values in earnest. "We Eat Dreams to Live" reduces economic burdens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presents an opportunity for families to operate in leisure. "Festival of Lights," a month-long cultural show involving stage lights and music,

elevates the reputation of the neighborhood. As an added benefit, the event naturally draws people to shop at the nearby Myeongseo Traditional Market. Also, by proving these cultural contributions and spreading the Gospel, the church can be well-placed to fulfill the desires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through the church's "Share Love" project, the body lives out the gospel by loving neighbors in financial need.

Third, the church invests in and creates alliances for the future. The church provides scholarships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area and forms friendly relations with the schools. In addition, the church assists in tuition expenses for promising students who have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ir family. Even more, Myung-gok Church helps find sister schools through foreign missionaries and assists local schools with the associated contracts and business agreements necessary for the local school establishments.

Myung-gok Church set goals for ten years into the future and aligns its current efforts with those goals. First, the church plans to turn the Vision Nuri Culture Center, an arm for social services through the church into a foundation rather than keeping it in its current non-profit status. This will enable the church to aim bigger and wider in its missions efforts. In addition, the church will purchase eight houses located in geographic proximity to the Center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ntional community.

In this community, there will be spaces for culture, education, and general welfare of the area. To this end, Myung-gok Church plans to build a hospital that gives more benefits to non-Christians, a clinic to promote healing, and a designated place for retreats and cultural education of each school in the city. In this way, the vision of Myung-gok Church – living intentionally among neighbors in its community – will be realized.

CHAPTER 6

CONCLUSION

God established the church on this land to realize His mission. For this purpose, churches have continued forward in the history of obedience as God's people. The early churches founded in South Korea have advocated for serving through communication in their neighborhoods, doing their utmost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and enlightenment through hospitals and schools. Through this, God allowed a revival in the Korean church.

Many churches, however, are facing difficulties and crises. In facing the challenges, the church should remember that Christians have encountered a number of difficulties from the time of the early church until now and overcome the crisis with grace every time. By this knowledge they should be encouraged in ceaselessly performing the Lord's commission. At this time, churches should concentrate on entering the area, identifying and fulfilling its needs, and putting service into practice.

Myung-gok Church, too, is a church located in the Myeongseo-dong area that will continue to perform the local church's mission. Like a street lights lighting up a dark place, Myung-gok Church brightens the community by giving economic aid to people in financial difficulties and helps students reach their dreams who otherwise may not be able to do so. In addition, Myung-gok Church is a church that pursues a culture that private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can be involved in and advocate for, revitalizing places that were once dead by meeting the needs of the community and investing in changes with long-lasting impact for the future. By doing so, the church invites people to examine their beliefs and secure new believers who embody the next generation of Christians.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진술

연구자가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세기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가 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부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는 부흥이 아닌 감소와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감소의 원인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요 교단 교세통계 현황¹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교단	2014년 교인수	2015년 교인수	비율
예장 통합	281만 574명	278만 9,102명	0.76% 감소
예장 합동	272만 1,427명	270만 977명	0.8% 감소
기독교대한감리회	137만 5,316명	129만 7,281명	5.7% 감소
예장 고신	46만 1,476명	47만 2,014명	2.2% 증가
한국기독교장로회	28만 4,160명	26만 4,743명	6.9% 감소
예장 합신	15만 1,516명	15만 5,776명	2.8% 증가

이처럼 한국 교회의 침체와 감소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거론, 조명되고 있는데, 지난 2010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1) 기독교 정보은행, [온라인 자료] <http://nohyongchan.blog.me/220823726700>, 2017년 1월 3일 접속.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의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표 2〉 무종교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²

무종교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 (2010 년도 조사)		
천주교	불교	기독교
37.6	36.1	14.4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진도해야 할 진도대상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무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본질에서 찾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연구, 분석하여 현대 한국 교회에 희석되고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침체의 늪에서 나와 다시 부흥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교회론을 회복하여 본질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데살로니가교회 등 세상의 교회는 지역과 연관되어 있고, 지역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에 지역에서 칭송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와 성도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들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에 대한 이해와 지역교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 규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김병연,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20.

2.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진술

본 연구는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교회 이미지와 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그 교회론에 근거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며, 교회성장의 대안으로 목회자들에게 그 방향과 방법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를 의미하는 개념들을 연구하고, 교회의 언약적인 요소를 살핌으로 성경적인 교회론을 규명한다. 둘째, 관련 논문 및 서적, 성경구절 등을 통해 교회론 연구의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현재 교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로 설문조사를 사용하고, 교회는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명곡교회로 제한하며, 지역사회는 명곡교회가 위치한 주변 지역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한글 번역 성경은 대한성서공회³에서 1998년에 발행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표준으로 하였다.

3. 성경적 신학적 근거

교회의 개념은 비록 그 용어를 교회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을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구약과 신약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 이후 초대교회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와 같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이야기가 계속해서 신약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안디옥, 고린도, 빌립보 등에는 각 성경의 핵심무대가 되는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세워진 곳의 다른 이름은 다른 아닌 지역이라는 것이다.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짐과 동시에

3)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대한성서공회 소개” [온라인 자료], <http://www.bskorea.or.kr>, 2016년 05월 01일 접속.- “대한성서공회 소개”에서 발췌.: 1947년 8월 19일에 설립된 기독교(개신교측) 비영리 법인으로 1961년에 “개역한글판”을, 1998년에 “개역개정판”을 번역 출간하였으며, 이 번역 성경을 한국의 주요 기독교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식과 법인 말씀을 통해 그 지역을 진리로 이끌어야 할 의무 또한 가지게 된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각 교회의 목회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에서부터 비롯된 복음 중심의 목회관은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하나되게 만들었고,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는 특별한 역사, 즉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을 동시에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교회 이미지와 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신학적인 근거는 교회론이 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론과, 교회사에 기록된 시대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만이 아닌 창원 명서동에 위치하여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명곡교회가 현재 속한 지역에서 어떠한 모습의 봉사를 해 왔으며 그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와 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에서 출발하여 본 교회가 속한 지역의 특징들이 어떠한지를 살핌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교회가 전도를 위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 생겨난 본 교회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앞으로의 목회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또한 이 연구의 핵심 단어가 되는 지역교회를 규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또한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 왔는지, 교회를 다룬 서적과 관련 논문들을 살피며 정리하려고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통해 복음전파의 기회를 열어가는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주로 ‘지역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개념 정리를 위해 관련 논문과 서적들에서 그 근거들을 얻어내려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될 신학적인 기초는 교회론이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빠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을 근거의 부분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신학적으로 사용될 구체적인 목회의 방법들, 그리고 경험들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들을 각 장마다 내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보다 신뢰성이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 지역의 특성들을 지방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지역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효과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교회 근방 1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비 명곡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 설문조사의 주된 내용은 설문에 참여하는 자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 내에 있는 명곡교회와 사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참여의 경험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얻어낸 설문의 결과물을 분석 및 평가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려고 한다.

1장은 서론으로 진행하고, 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정의와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모습, 역할을 다루고, 지역교회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다룰 것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현장이 되는 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역사 및 지역적인 특성, 또한 이 지역에서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룰 것이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문기법을 사용하였고, 그 설문의 내용을 정하게 된 기준 및 계기, 그리고 설문을 통해 얻어낸 실제적인 결과를 통계,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얻어낸 분석의 결과를 기술하고, 목회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게 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서 연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낼 것이다.

5. 문헌검토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바로 교회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기에 교회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역사 등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할 것인데,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한 「교회론」⁴이라는 책을 참고할 것이다. 이는 교회론 정립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감당했던 신학자들의 교회론을 저자별로 분류하여 편집된 책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인 정홍열,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인 최윤배를 비롯하여 총 19명의 한국조직신학회에 속한 집필진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의 특징은 각 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학자들의 교회론을 다룬 논문들을 한 곳에 모은 교회론의 인명 백과사전이라 칭한다. 각 신학자들이 활동하였던 그 시기들이 다양하기에 자연스레 신학자들이 살아왔던 그 시기의 교회론의 주류에 대해서도 이해해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역사적인 흐름도 이 책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론은 물론이고, 쉽게 다루지 않는 여성신학, 민중신학, 생태신학 등의 교회론도 다룸으로써 교회론의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책이다.

또한 개혁파의 대표 신학자로서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신학부 조직신학 부분에서 학장까지 역임했던 게릿 코벨리스 베르카우어(Gerrit Cornelis Berkauer)에 의해 집필된 책인 「개혁주의 교회론」⁵을 참고하려고 한다. 이 책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를 믿사오며”라는 기본적인 주제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이라는 네 가지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교회의 정통성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데 그들의 삶을 던지 사도들의 신앙의 기초 아래 계승의 성격으로 규정한다.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지역교회의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 각 시대의 교회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서적들을 참고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시대는 초대와 중세, 그리고

4) 한국조직신학회 편,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

5) Gerrit C. Berkouwer, 「개혁주의 교회론」 나용화 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6), 2.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시대이다. 이를 위해서 사용한 서적은 먼저 교회사 연구의 거장인 헨리 채드윅(Henry Chadwick)에 의해 집필된 「초대교회사」⁶라는 책을 통해서이다. 시작, 성장, 꺾박 등의 용어로 규정할 수 있는 초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어떻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왔는지를 명확하게 잘 정리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의 특징이다.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살펴보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사회 봉사를 감당해 왔는지를 연구하려 한다.

기독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역사를 이어왔는지를 잘 기록하고 편집한 책으로 초대교회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어서 중세의 교회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윌리엄 캐논(Wiliham Canon)에 의해 집필된 「중세교회사」⁷라는 책을 참고로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주로 다룬 것은 수도원과 구빈원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며, 특히 구빈원을 통해 어떻게 사회봉사활동이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여 중세시대의 교회의 신학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고, 구빈원을 토대로 하여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떠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감당해 왔는지를 또한 연구할 것이다.

이 책들 말고도 근대와 현대,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들을 참고하였는데, 종교개혁 시기를 다룬 전 합동신학대학원장을 역임했던 오덕교의 「종교개혁사」⁸, 이어서 근대와 현대 교회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 제럴드 크랙(Gerald Crack)에 의해 쓰여진 「근현대교회사」⁹와 같은 책이다.

또한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신학자의 저서 두 권을 살펴려 하는데, 먼저 두 명의 신학자는 마르틴 루터

6) Henry Chadwick, 「초대교회사」 박종숙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9), 2.

7) Wiliham Canon,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2.

8) 오덕교, 「종교개혁사」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3.

9) Gerald Crack, 「근현대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9), 2.

(Martin Luther)와 존 칼빈(John Calvin)이다. 마르틴 루터가 기록한 「크리스찬의 자유」¹⁰라는 책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 그리고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봉사의 책임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지를 풀어갈 것이고, 대표적인 기독교 고전이면서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는 존 칼빈의 저서인 「기독교강요」¹¹를 통해 종교개혁시대에 칼빈을 통해서 그려진 교회의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특히 교회론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면서 빛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사회 봉사를 통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또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교회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개역개정판 성경을 기초로 하되,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 다음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려고 한다. 먼저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의 저서인 「신약성서신학」¹²과 존 스토틀(John Stott)의 저서인 「BST 에베소서 강해」¹³, 그리고 호서대학교 오영원의 박사학위 논문인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교회론”¹⁴이다. 이 연구물 외에도 여러 논문과 서적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기록된 교회의 특징들과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것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들은 지역교회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지역교회의 현재 모습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다. 먼저 두 권의 책을 참고로 하였는데 책의 특징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가지는 복지적인 책임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보성읍교회 담임목회자인 최용준이 집필한 「교회와 지역사회 복지」¹⁵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¹⁶라는 책이다. NGO선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회의 사역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교회

10)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지원용 역 (서울:권콜디아, 1965), 2.

1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4), 2.

12) Hans Conzelman,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2.

13) John Stott, 「BST 에베소서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7), 2.

14) 오영원,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교회론”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2

15) 최용준, 「교회와 지역사회 복지」 (서울:땅에 쓰신 글씨, 2009), 3.

16) 조성돈 외,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2.

사회사업이라는 개체를 가진 각 교회들이 사회복지를 토대로 하여 사역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열거함으로써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교회와 지역사회 복지」라는 책의 핵심 주제는 이것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새계명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져야 할, 즉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게 한다.

저자는 교회의 책임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책의 초반부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의 개념, 그리고 교회가 지역 가운데 보여야 할 사회복지의 정의를 내리며,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열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자가 목회를 하는 보성 지역에서 보성읍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역 복지에 힘썼는지,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안과 진료, 장학사업, 인터넷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와 매뉴얼들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복지에 관심이 많은 교회들에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성돈, 정재영 저자가 집필한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라는 책은 “NGO를 통한 선교와 교회.”에 대해서 다룬다. 이미 제목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본 책은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 기독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NGO를 통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사회’란 중세와 근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족쇄를 채우려 했던 주인과 종과 같은 신분 제도에서 벗어나 시민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주권과 참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를 의미한다. 많은 이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그 참여는 권리를 넘어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은 의무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교회는 추세에 맞게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세상과 시민을 바라봐야 하며, 또한 선한 사마리아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것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이 NGO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의 방법들을 소개한다.

또한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위해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에서 편찬한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¹⁷라는 책과 한국선교신학회에서 편찬한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¹⁸라는 책도 참고를 할 것이다. 이 두 책의 주요한 특징은 각각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선교라고 했을 때, 두 책이 모두 주장하고 있는 바는 지역교회의 사역은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두 책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가 가지게 되는 연관성을 밝히고, 지역교회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들을 찾으려 한다.

앞에서 열거하고 논평한 서적들 외에도 개혁신학과 기독교 교육, 사회복지 발달과 사상,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등의 책을 통해서 교회가 바라볼 수 있는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책임들과 방법들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얻으려 한다. 또한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의창구청¹⁹의 협조 및 자료 자문을 얻어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자료들을 얻었다.

17)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

18)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용인: 킹덤박스, 2015), 2.

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사랑나눔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협약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제 2 장

교회와 지역교회

1. 구약성경에 나타난 교회

구약성경에 교회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회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 기록되어 있다. 그 단어로는 ‘카할(קָהָל)’, ‘에다(הֶעָדָה)’, ‘암 엘로힘(אֱלֹהִים אִמִּי)’, ‘암 아도나이(אֱלֹהֵינוּ אִמִּי)’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은 칠십인역에서 교회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회당이라는 의미의 시나고게(συναγωγή), 그리고 총회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1) 카할(קָהָל)의 교회

카할(קָהָל)은 히브리어 ‘부르다(call)’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카할(קָהָ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모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카할(קָהָל)은 구약의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의 카할은 항상 교회(ἐκκλησία)로 번역되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회당(συναγωγή)으로 번역한다.²⁰

카할(קָהָל)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집된 무리’를 의미한다. 시편 26편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행악자의 집회’도 카할(קָהָל)을 사용한다. 이러한 카할(קָהָל)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집된 무리이기에 계약을 바탕으로 모인다. 그러므로 카할(קָהָל)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사이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20)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erdmans, 1962), 529.

바탕으로 하며 이 시내산 언약을 바탕으로 모인 무리를 카할(קה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카할(קהל)의 교회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공동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함께 모였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재확인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신명기 4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의미한다. 이는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정리하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바를 전할 때 나타난 사실이기도 하다. 신명기 5장 1절에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기록 되어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를 일컬어 카할(קהל)이라고 부르며, 이는 교회로 모이는 목적과 동일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 규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²¹

이 당시 이방인들은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유는 가나안의 농경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가나안 땅에는 농경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주장하는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땅에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²²

이러한 논리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21) C. F. Keil, F. Delitzsch, 「카일델리취 성경주석 신명기」 송종섭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0), 86.

22) Leland Ryken, 「성경이미지사전」 홍성희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1), 858.

당연시 하였다. 이러한 가나안의 신을 우상숭배하는 농경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살아가야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리 이러한 일들을 아시고 이스라엘이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신 것이다.

(2) 함께 위기를 대처해가는 공동체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지역, 국가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온다. 교회는 이 위기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겨내야 할 책임들을 가진다. 그 성경적 기초가 함께 위기를 대처해가는 공동체인 카할(קהל)의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카할(קהל)은 나라의 위기나 이스라엘 사회의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군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열 한 지파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백성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또 여호와와 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소속 기브아에서 비류들로부터 음행을 당하고 죽은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 외에 이스라엘 전 지파의 지원병들이 미스바 광장 하나님 앞에 모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모인 용사들을 가리켜 카할(קהל)이라고 칭했다. 그 근거를 사사기 20장 2절과 21장 5절에서 찾을 수가 있다.²³ 이처럼 카할(קהל)이란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함께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지키고 확장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3) Paulus Cassel, 「랑계주석 사사기 룯기」 배영철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9), 529.

(3) 재판을 위한 모임

욥기 30장 28절에 욥은 카할(קָהָל) 가운데 서서 도움을 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카할(회중)은 앞서 언급한 제사와 군사, 정치의 목적이 아니다. 욥이 말한 카할(קָהָל)은 재판을 위해 모인 원로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이러한 목적의 회중은 잠언 26장 26절, 에스겔 16장 40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카할(קָהָל)은 말씀을 위배한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지켜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카할(קָהָל)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모인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민족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카할(קָהָל)은 결코 개인에게 속하거나 개인으로부터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카할(קָהָ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되는 공동체이다.

2) 에다(עֵדָה)로서의 교회

에다(עֵדָה)도 카할(קָהָל)과 마찬가지로 회중이라는 말로 번역된다. 그러나 칠십인 역에서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번역하지 않고, 항상 회중으로 번역된다. 카할(קָהָל)이 신명기와 관련하여 주로 나타나는 반면, 에다(עֵדָה)는 제사와 관련된 문서에서 주로 사용된다.²⁴ 에다(עֵדָה)에는 다음과 같은 교회로서의 기능들이 나타난다.

(1) 제사의 역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참석하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향하여 에다(עֵדָה)라고 부르고 있다. 레위기 8장 3절에서나 민수기 19장 9절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이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다(עֵדָה)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24) TWAT, V권(1986), 1081.

미루어 볼 때, 에다(הָעֵדָה)는 절기나 성일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회중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다(הָעֵדָה)는 앞서 말한 것처럼 카할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두 단어는 분명 차이가 있다. 카할(קָהָל)은 ‘소집’의 의미로서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의 모임을 의미하며, 대군, 대집단(창 28:3, 35:11)을 의미한다. 반면 에다(הָעֵדָה)는 시간을 정한다는 의미로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와 거룩한 종교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에다(הָעֵדָה)는 성직자와 관계된 글에 사용되고, 왕국 전시기에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의 사용 시기는 열왕기상 12장 20절 이하의 분단 왕조 때까지 사용되어 있다.

(2) 군사, 정치의 목적을 위한 역할

에다(הָעֵדָה)의 고전적 의미로는 ‘무기를 가진 군인들’을 의미한다. 민수기에 출애굽 한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위치가 정해지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며 회막을 지켰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하여 20세 이상의 전쟁 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징집할 때도 에다(הָעֵדָה)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카할(קָהָל)과 유사하게 국가의 위기에 소집(출 16:2-3, 민 14:1-10, 민 17:6-7)되어 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에다(הָעֵדָה)는 다윗 왕국까지 군사, 정치를 주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²⁵

(3) 재판을 위한 역할

광야에서 에다(הָעֵדָה)는 군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통치기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에다(הָעֵדָה)가 통치기구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왕국이 자리를 잡고 난 후로부터는 기능이

25) John Peter Lange, 「랑계주석 민수기」 김진홍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9), 168.

감소되었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것은 지방 종교법정²⁶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재판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요 사법적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파기(민15:33),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레24:14), 헤렘을 위반하였을 때(수6:17), 부도덕한 일을 행하였을 때(사19-21), 우상을 섬겼을 때(겔16:40)와 같은 일이다. 이러한 일을 범한 사람들을 에다가 재판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집행하였다.

3)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써의 교회

카할(קהל)과 에다(עדה)와 함께 구약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말은 ‘암’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본래 친족 또는 씨족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단지 하나님의 종, 보조자라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으로 여기는 표현이었다.

2. 신약성경의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론

신약시대에 접어들면 교회의 개념은 더욱 명확해지는데, 이는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원어의 본래 의미를 밝히고, 그와 비슷한 의미들이 신약 성경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연구하여 교회에 대한 개념을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바울서신에 나타난 교회론을 연구함으로써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론을 정리할 것이다.

26) 쿰란 공동체(BC 2C-1C) 문서에는 이 에다가 약 100회이상 나타난다. TWAT, V권(1986), 1081.

1)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이다.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칠십인역에서 전해져 왔고, 이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교회가 평행성을 나타내고 있다.²⁷ 칼 홀은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가 원래 원시 기독교를 나타내는 말이었으며, 그 기독교를 물려받은 유대 표현에서 이 이름을 회당에 대립하여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각했다고 말한다.²⁸ 이 말은 ‘부름 받다’ ‘밖에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며, 그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다.

신약에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는 114번이 사용되는데, 바울서신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²⁹ 바울은 이 개념을 사용할 때 단순히 인간 조직이나 단체 건물로 여기지는 않았다.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바칠 것을 서약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³⁰ 이 단어는 마 16:18, 18:17을 제외하고는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임에 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용어는 신약의 그 어떤 저자들보다 바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는 이 용어를 차용하여 가정집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불렀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모였던 신자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데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³¹ 이처럼 신약에 나타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27) Hans Conzelman, 「신약성서신학」, 51.

28) Kall Hall, 「원시교회의 관념에서 본 바울의 교회개념, 신약의 교회 개념」 전경연 역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9)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 (서울: 기독교문사, 1992), 20.

30) Ibid., 193.

31) 오영원,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교회론” 125.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예배의 토대 아래 그 사명을 이어나가는 믿음 공동체이자,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의미를 가진다.

2) 바울의 교회론

우리가 이미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용어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의 기초가 된 것도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교회론에 담긴 내용들이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의 교회론에 담겨진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들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교회와의 필요성 및 연관성을 결과로 도출하고자 한다.

(1)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엡 1:1에서 바울은 수신자들을 가리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칭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묘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전의 것이 아닌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들의 존재 영역을 지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는 평범한 사람을 성도와 신실한 자로 가능케 하는 도구가 된다.

바로 그 연합 아래에서 성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풍성한 은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창세전의 선택, 죄로부터의 구원, 아들로써 인침과 유업의 상속자 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⁴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⁵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⁶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⁷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¹³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¹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신령한 복의 토대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백성, 이것이 바울이 강조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주로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이 생각한 이 몸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은 추상적인 몸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이다.³²

더 나아가서 이 연합을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지체들 상호간의 연합이다.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의 개념이 하나로 이해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의 지체들 상호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런데 두 가지의 연합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우선시되고 있고, 연합의 근원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전 12:12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디에서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한 목적과 성질을 가진 사람이나 물체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합되어 생긴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출발은 신자 상호간의 연합보다는,

32) Hans Kung, 「교회」 정지런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4), 319.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연합을 기초로 하여 교회 지체들 상호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됨이라는 표현으로 그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이 하나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고린도교회 안에 분파와 충돌이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바울은 이를 전해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지체로 구성된 몸의 일치를 호소하고 있다.³³⁾

(3)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할

성령께서는 오순절을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교회를 통한 본격적인 사역을 이어가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 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그들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는 주역들이 되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고, 복음이 수많은 지역과 나라들을 뚫어 나가며 그 곳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활동을 이어가셨다. 먼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 다스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 시작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건강한 치리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집사를 세웠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명령하에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를 위한 파송을 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기 위해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는 성령의 역할은 교회의 성장을 돕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기록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33) John Stot, 「BST 에베소서 강해」 183.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그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신다. 또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중생시키며 믿음을 성장시켜 그 분의 지체로 만들어 가신다.³⁴ 이와 같은 성령의 역할은 교회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며, 또한 교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4)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

바울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음 받은 ‘새 사람’(엡 4:24)으로서 교회의 존재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화해로 이끌어 가셨다.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신비한 연합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신적인 위상을 가지게 한다.³⁵ 이렇게 교회는 이전까지 그들에게 요구하였던 사회적인 도덕적 요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새 생명을 영위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의 삶을 이어나갈 책임을 가지게 된다.

에베소서 4장 22-24절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새로운 가치관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다. 또한 사랑을 입은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가 사랑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다.³⁶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랑의 역할을

34) 오영원,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교회론” 125.

35) Ibid., 191.

36) Ibid., 192.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범과, 또한 사회 봉사과 구제 등의 방법들을 추구해야 한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겠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바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교회는 그 사명들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3.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

1) 초대교회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는 콘스탄틴에 의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시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본질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지역 사회에 대하여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를 여기에서 살펴보고 한다.

(1) 콘스탄틴 이전의 교회의 모습

초기에 기독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의 종교라는 핏박을 받아야 했으며, 로마로부터도 불법의 종교로 간주되어 탄압을 받아야 했다.³⁷⁾ 이뿐 아니라 교회는 정상적인 재산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교회 건물을 소유할 수 없었을 뿐만,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초기에 기독교는 빠르게 확산되어져 갔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기독교 확산의 중심지는 안디옥이 되었다. 이 안디옥으로부터 소아시아로 복음이

37) Henry Chadwick, 「초대교회사」 27.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열악한 가운데도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이 섭리에 기여한 환경적 요소를 스테판 닐은 6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복음전파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수용적 배경, 세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의 순결한 생활, 네 번째로 평등사상, 다섯 번째로 자선 활동과 봉사, 여섯 번째로 순교의 모습이었다고 말한다.³⁸

초대교회 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웃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보살폈고, 약한 자와 환자, 장애를 가진 이들을 간호하였으며, 옥에 갇힌 자와 탄광촌의 고달픈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움을 당한 이를 위로하고 여행자들을 선대 하였다. 이런 도움의 손길은 교회가 성장하게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³⁹

초대교회는 아직 행정적인 기반이 자리를 잡지 않은 시기인 만큼 교회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강했다. 1세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제자이거나 사도들과 관련 있는 지도자로서 속사도라 불린다. 이들에게 아직 어떤 특수한 사상 체계나 신학 교리적 원리를 찾을 수 없으나, 이들의 교회의 통일과 질서를 강조하였다.

2세기 중엽을 거치면서 교회는 급성장하여 사회가 무시 못할 단체가 되었다. 로마안에서도 유대인 다음으로 큰 집단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물리적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교리적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세상이 보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증적인 요소를 많이 띄웠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죄함을 변증하고, 기독교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인육을 먹는다, 근친상간을 한다는 등 다양한 루머에 해명을 하였다.⁴⁰

그러므로 콘스탄틴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 행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있었으나, 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큰

38) Stephen Nea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Penguin book, 1977), 46.

39) Henry Chadwick, 「초대교회사」 59.

40) Ibid., 75.

성장으로 교회에 하나 됨과 믿는 대상의 공통된 고백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습이였다.

(2) 콘스탄틴의 로마 공인 이후 교회의 모습

콘스탄틴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박해는 종식되었고 제국의 종교로 변화되어 갔다.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원을 받고 교회당이 건축되었고, 감독과 설교자들도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게 되었다. 또한 교회는 재산이나 유산을 기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를 향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소외되고 힘든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과 명예를 얻는 길이 되었다.

제국의 종교가 되고,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물질을 가지게 됨으로 체계적인 종교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였다. 단순했던 예배가 복잡해지고, 소박하고 작았던 예배 모임 장소가 크고 웅장한 교회로 변화 되었다.⁴¹ 또한 교회의 조직과 제도가 발전하면서 과거의 원시적인 기독교로부터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천주교에서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교황제도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제국의 종교로서 모든 지역과 나라에 기독교가 빠르게 퍼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단체의 박해로 인하여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서로의 생각과 교리가 틀리므로 오는 갈등이 많았다. 특별히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관계에 대한 논쟁이 심하였다.’⁴² 이런 갈등이 극심해지자 결국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는 다양한 회의를 통하여 자신의 교리가 맞음을 주장하였으며, 이 회의들을 통하여 지금의 핵심 교리들이 하나씩 정립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제국의 종교가 되니, 세속적인

41) Ibid., 138.

42) Ibid., 258.

권력이 교회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중세교회

그레고리 1세의 등장인 59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중세교회라고 부른다. 그레고리 1세가 제1대 황제로 취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세교회의 약 1000년 동안에 교회는 국가적 지배를 벗어나 국가 위에 군림하였으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대부분 의식에 치우치게 되었고 교황은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했으나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말았다.

교회가 부와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자 이 부와 힘을 가지려는 이권 다툼이 중세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 이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동방과 서방의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고, 황제와 교황의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이권 다툼에 실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고, 이들은 세속적 삶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수도원에 들어가 생활하는 무리들이 늘어 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이 중세교회보다 더욱 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다.

(1) 수도원의 배경

교회가 부와 정치적 힘을 갖게 되자, 자발적으로 부를 포기하고 세속적 삶에서 분리되어 수도원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이 순교의 이상과 같다고 여겨지면서, 수도원은 탄생, 성장했다. 사람들의 열렬한 종교심을 기성교회가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했을 때, 수도원은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교황은 수도원 운동을 완전히 배척하기보다 자기 기준에 따라 이단적인 수도원 운동과 그렇지 않은 운동을 구분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방 주교나 교역자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다.⁴³

당시에 수도원은 기도와 말씀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대학이 발전하기까지 수도원은

43) Wiliham Canon, 「중세교회사」 26.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중세 시대 대표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원 출신이었다. 인쇄술이 없었던 당시 수도원은 고귀한 고대 문서들을 보관했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수도원은 개혁운동은 교회에도 영향을 주어서 교회도 개혁운동에 동참토록 하였다. 특히 수도원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교회 개혁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별히 탁발 수도사들은 이전 수도사들과 달리 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갔고, 사회 봉사와 설교를 통해 평신도들의 신앙 수준을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하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거부되었다. 이들은 교회 회원을 특별 회원과 보통 회원으로 나눔으로써 영적 엘리트주의를 양산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을 회원들에게 강요함으로 바리새인적 신앙생활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세기독교의 사회 봉사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에 중세교회의 가르침은 구제와 자선활동에 의해 신앙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으로 가르쳐 수많은 성도들이 힘에 겨울 정도로 결핍된 사람들을 도와 주었다. 그들 대다수는 구제를 위한 비용을 수도원에 바쳤고, 자신들의 유산 마저도 수도원에 헌납하였다. 비그리스도인과 정치인들조차도 교회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결핍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기독교는 수도원을 통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였다.

베네딕트 수도원은 환자들을 위하여 ‘병약자 휴양소’, ‘나그네의 집’, ‘극빈자병원’을 설립하였다. 수도원은 치유와 돌봄을 위한 교육장 실습장 경험장이 되었다. 또한 베네딕트 수도원은 규칙적으로 금융, 의류 및 실료품을 분배하는 사람을 세워 이 일을 관장하게 할 만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다.⁴⁴

44) Ibid., 359.

(2) 구빈원

중세교회는 구빈원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하였다. 속세를 떠난 수도승들이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봉사를 그리스도인의 사며, 곧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과제로 이해하였다는 의미이다.

구빈원의 직원은 대부분 성직자들과 의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구빈원의 운영자금은 중세교회의 십일조에서 삼분의 일을 통하여 충당되었고, 국왕이나 귀족, 일반인들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이루어졌다. 구빈원의 역할은 신체의 치료도 하였으나 영혼의 휴식을 위한 것이 되었다. 최초의 구빈원들은 나그네들을 위하여 숙박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여행자들과 가난한자들, 성지를 향하는 십자군들과 순례자들의 위한 구빈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세시대를 무섭게 하였던 흑사병을 피하여 돌아다니는 이들을 위한 구빈원, 도망하는 농노들과 일터가 없는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구빈원도 있었다. 즉, 시대의 필요에 맞게 목적으로 갖춘 구비원들이 세워 졌음으로 볼 수 있다.⁴⁵

구빈원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봉사가 전개됨으로 교회는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구빈원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삶의 모델을 보여주었고, 복음전도와 사회봉사, 영혼구원과 육신적인 보호를 함께 병행한 것이다. 그리고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구빈원을 통하여 개별적 구제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집단적 구제도 실천할 수 있었다. 당시에 구빈원은 세상의 어두움 면을 비추는 밝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3) 개혁주의 시대의 교회

개혁주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교회론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개혁자이자, 학자인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교회론에 대해 다룰 것이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그들이 강조했던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45)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112.

관점과 책임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한다.

(1) 마틴 루터의 교회론⁴⁶

초창기⁴⁷ 루터가 언급한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시각보다는 고대 교회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에서 벗어난 로마 교회에 대한 비판이 주된 강조점이었다. 여기서 루터는 말씀을 강조하며, 또한 칭의 사상을 교회 이해에도 접목시킨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하며, 세속적인 것이 아닌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주장을 한다.

후반기⁴⁸에 이르러서 루터는 교회란 무엇이며, 참된 교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다. 초기 그의 관심의 주제였던 칭의론에 근거하여 말씀의 권위라는 본질적인 차원을 기반으로 교회의 외적인 표지를 설명한다.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명제 하에 교회의 사회봉사를 풀어나갔다. 그의 사회봉사 신학은 의인론에서 출발한다. 봉사 행위보다 봉사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에게 집중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밖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의, 곧 예수의 의이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의, 곧 첫 번째 의와 더불어 행하는 의이다. 우리 자신의 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첫 번째 의와 더불어 행하는 의이다. 선한 행실의 삶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욕을 죽이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한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해 온순하고 두려워한다.

46)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2.

47) 1차 시편강해(1513~1515)와 바울 서신주해 기간인(1513-1518)이다.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95.

48) 1530년 이후로, 개신교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공식 보장된 이후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던 시점이다. Ibid., 98.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행하는 의는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듯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희생과 봉사는 기독교적 가치를 상실한다. 나아가서 이웃의 상태가 자신보다 더 낮기를 바라며, 만약 이웃의 상태가 더 낮다면 자신의 상태가 더 나을 때 기뻐하는 것 못지않게 기뻐한다.

루터에게 선행이란 믿음에 근거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행 이외에 우리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선한 일 가운데서 가장 선한 일을 루터는 요한복음 6장 28-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칭한다.

믿음은 그 자체로 선행이거니와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또한 선행이다.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선행이라 할 수 없다. 신앙 밖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며 완전히 죽은 것이다. 이러한 명제는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다 선하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했다.

루터에게 있어서 선행이란 무엇을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누가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를 균등하게 한다고 본다. 믿음은 모든 행위의 질적인 의미를 평준화한다. 그러나 양적인 크기를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이러한 논리를 더욱 진전시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라고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산 자녀를 만드나” 믿음 없는 행동은 “더 사악한 우상숭배와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위선자들을” 만든다. 믿음이 바로 서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1520년에 발표된 ‘그리스도인의 자유’⁴⁹라는 논문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근거와 그에 따른 봉사의 의무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는 자유와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신분의 변화로 보며, 이 자유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 또는 봉사를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활동으로 설명한다.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한다고 했다.⁵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셨으나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유자이셨으며, 또한 종의 형상을 입은 섬기는 자이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죄의 노예 아래 있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 뿐이다.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인 예수와 동일시된다. 즉, 말씀은 예수이다. 그러므로 말씀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말씀 안에서만 인간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안에서 자아가 소멸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은 자유인이며 그의 자녀의 권위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도 선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는 첫 명제가 분명해 진다.⁵¹

봉사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공적주의로 몰아가기 쉽다. 루터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위한 행위(금식, 절제, 노동 및 다른 적절한 훈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육적인 방종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런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극기와 절제’를 필요로 한다고도

49) 1520년 말에 쓴 이 문서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50)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20.

51) Ibid., 27.

강조한다.⁵²

루터는 선을 행하는 자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 “신앙에 의하여 성별된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그 선행이 그를 더 거룩하게 하거나 혹은 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이다. “먼저 본질 혹은 사람 자체가 선해야 하며, 또한 선행이 선한 사람을 따르고 그에게서 나와야 한다. 행위가 사람을 신자나 불신자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라고 했다.

믿음이 선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온다. 믿음이 없이 행한 일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졸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적인 차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모든 일에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산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진실하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탕니에게 예속시킬 때 가능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다시금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참으로 활동적인 것”이 된다는 진리를 말한다. 진정한 믿음이야말로 활발하고 친절하며 기꺼이 섬기는 가장 자유로운 봉사의 행위로 나타난다. 이처럼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삶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⁵³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을 귀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든다. 모든 행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 가운데서 종의 모양을 취하여 모든 방법으로 그의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개개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되어야 한다.”⁵⁴

말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52) Ibid., 29.

53) Ibid., 31.

54) Ibid., 28.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응답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적, 외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 루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자기만족만을 위한 정신적인 수단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동료 인간들을 섬기는 실제적인 삶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2) 존 칼빈의 교회론

칼빈이 주장하는 교회의 본질은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와 ‘삼위일체론적 교회’이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이미 초대교부들을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서,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⁵⁵에서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아동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 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성도들이라고 할 때, 교회가 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교회가 자신의 자녀들인 신자들을 배양 및 성장케 하는 양육의 기능과 훈련 및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⁵⁶

그리고 삼위일체론적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삼위일체론적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섭리로 굳건케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영원 불변하시는 구속 주 성자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 안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와 연결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며,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와 그 외의 모든 은택들과 소망을 강화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또한 칼빈은 교회를 네 가지의 특성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의 보편성, 그리스도의 몸,

5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3권 128.

56)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124.

57) 최윤배 공저, 「개혁신학과 기독교 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66.

거룩성, 사도성으로 나타내고 있다. 첫째, 보편성이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란 하나의 교파나 하나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그들이 믿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의미로서의 하나이다.⁵⁸ 이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되었다고, 그 교회의 근원이 되는 머리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구성되는데, 이는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사실이다. 또한, 보편적 교회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생명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이다.⁵⁹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정의하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교회가 분리한다는 것은 곧 머리로부터 몸을 찢는 것이라는 사실이다.⁶⁰ 교회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지 말아야 할 책임을 가진다. 하나의 머리에는 하나의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서의 연합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의해 성령에 의한 내적인 갱신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졌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누릴 영원한 은혜이다. 또한 거룩이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인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인 것처럼⁶¹ 교회는 그 성품을 본 받아 삶에서 모범된 거룩의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을 가진 공동체이다.

넷째, 교회는 사도적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사도성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능해지는 진리의 연속, 즉 교리의 연속이라는 범주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58) Gerrit C. Berkouwer, 「개혁주의 교회론」 135.

59)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134.

60) Ibid., 135.

61) Ibid., 137.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⁶² 그러나 그의 후대 사람들은 성경에 봉인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는 직분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역자인 자들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이가 복종하라 명하신 교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친다.⁶³ 이 교리를 지키며 가르치는 진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사도성의 토대 아래 교회는 그 권위를 인정 받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이어서 칼빈은 교회가 행해야 할 구제, 봉사에 대한 부분을 교회의 직분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은 영구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이다. 바로 이 일을 담당하게 된 자들이 교회의 집사인데 로마서 12장 8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공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는 내용을 토대로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⁶⁴

루터와 칼빈의 교회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론은 사도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에 그 성경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또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진리 아래에서 그 근간을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의 한 방향으로서 지역을 향한 봉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루터와 칼빈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4. 지역교회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세워졌고, 시대마다 그 교회가

62) Ibid., 141.

6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권 214.

64)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138.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고, 지켜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와 전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회’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로서의 특징과 지역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지역교회의 여러 모습들과, 왜 교회가 지역교회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룰 것이다.

1) 지역교회의 성경적 근거

(1) 창조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세계는 너무 좋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마저 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타락 전 세계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먼저 교회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남아있는 깨어진 관계,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타락한 것을 보기 좋게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지역 사회에 깨어진 현상들을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 범위는 지역사회의 부조리, 빈부격차, 실업, 청소년 범죄, 빈곤, 가정불화, 이혼, 동성애, 마약, 중독, 정신병, 노인문제 등 사회병리 현상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해야

한다.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2) 구약

구약의 율법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다. 특히 출애굽기 22장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라고 말한다. 특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이나 전당 제도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말한다. 레위기 19장에도 노동자의 품삯을 그날에 지불하라고 말한다. 이사야 1장에는 사회적 약자가 법정에서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다. 특히 신명기 26장은 삼 년 마다 거두어들인 십일조를 레위인과 떠돌이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 그들을 먹일 것을 명령한다. 넓게는 이스라엘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신 율법이며 삶의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었다. 즉 이 모든 것은 교회 내부의 약자 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의 약자에게 까지 교회의 손길이 미칠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3) 신약

복음은 특정한 민족, 즉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신약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다. 특히 예수님은 그 분이 사역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원과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지역의 소외 계층과 죄인,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지역의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그 지역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려 고통 받는 자들을 치료하셨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만 선을 베풀지 않으셨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다. 특히 예수님은 그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병자와 가난한자, 세리와 창녀, 여자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셨다.

이렇듯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하시던 시기의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델이었던 예수님과 제자의 공동체는 자체에 속한 자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닌, 이 공동체가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의 변화는 있었지만 지역에 속한 사람들, 즉 현재는 공동체에 없지만 앞으로 공동체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초대교회도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고, 지역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교회마다 지역성도들을 돌볼 목회자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이기를 힘쓸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구제와 선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심지어는 자기의 물건을 내어 놓고 통용하기 까지 했다. 이러한 지역 섬김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기 까지 하였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함께 느끼며 살아가야 할 사랑의 공동체요, 친교의 공동체였다.’⁶⁵

초대교회의 분열 문제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 때로 휘청거릴 정도의 위기들도 찾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 초대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연보를 모아 전하는 베뢰아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구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는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교회는 현대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혀 아니다. 이미 교회의 사역은 지역교회와 함께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 증거하는 바대로 초대 교회는 백성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다. 지역사회에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만 전해서 성취되는 일은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복음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지만 복음은 사랑에 담겨서 전달 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65) 이관순 외,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1.

미칠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었다. 복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랑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은 사랑을 통해 전달된다. 지역사회는 성도들의 사랑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초대교회의 방식이었으며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까지 교회는 복음과 사랑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바울이 보낸 편지의 수신자는 지역교회 성도들이었다. 바울의 편지는 일편적이지 않다. 그의 편지는 각 지역교회의 상황에 맞게 기록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 교회 사정에 맞게 기록했고 고린도교회는 그 교회 사정에 맞는 편지를 기록했다. 이미 신약에 등장한 교회는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교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우주적 교회⁶⁶의 의미와 함께 지역교회의 중요한 의미도 담겨야만 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와 교회와의 관계

(1) 지역사회와 교회의 연관성 이해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community’라고 하는 것으로 사회학에서는 공동체라고도 부르는 개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용어 간단하게 정의 내린다면 “지리상의 근접성과 사회 차원의 공동의식 및 문화 차원의 공동 규범을 가지는 공동의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사회는 비슷한 생활 양태나 환경의 동질성을 가진 일정한 인구가 자연, 생태, 지리상으로 한정된 근접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문화 및 역사 유산을 공유하여 동질적인 의식을 가지고 협동 생활을 하는 공동체 사회이다.

교회 역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다. 교회는 그 지역의

66) 에베소서 1장 22-23절에 기록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는 내용대로 우주적인 교회는 어느 한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67) 조성돈, 정재영,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107.

정치, 경제, 사회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다.⁶⁸

이처럼 교회는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지역사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인 사람을 선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시작된 교회 공동체 역시 그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의 역동적인 유기체로 지어져 가는 기초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사용해 가신다.

이렇듯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사명은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이 증거하는 바대로 그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를 어딘가 멀리 여행하는 지리적인 이동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의 주된 동사는 '가서'가 아닌 '제자를 삼아'이다. 즉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시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어디에 가든지 또는 어디에 있든지 제자를 삼는 것이었다.⁶⁹ 지역교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68) Ibid., 108.

69)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185.

“어디에 있든지”의 부분이며, 여기서의 ‘어디’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교회가 지역을 품고 지역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다.⁷⁰

(3)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과 사람의 집단이라는 개념으로서의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회에 그분의 주권은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 이를 넘어서서 사람을 통해 생육과 번성, 다스림의 책임을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도 그 주권은 미친다. 나아가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가 되는 개념은 다름 아닌 사랑과 공의이다. 십계명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새계명⁷¹으로 갱신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랑의 기초 개념이다. 또한 그분의 통치는 죄를 심판하고 의를 상주는 공의의 통치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상에 공의를 물처럼 흘려 보내야 한다.

이런 개념 아래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또 다른 곳인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이다.⁷²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은 교회 안 만이 아닌 온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선교가 실행되는 장소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상 속으로 성육신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눈높이를 맞추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70) 최용준, 「교회와 지역사회 복지」 21.

71)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두 가지 큰 범주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 간결하며 구체적인 것으로 정립하여 주셨다.

72)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208.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⁷³ 그 구체적인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병들고 힘든 자를 돕는 등의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성암교회는 아파트가 아닌 대부분 빌라형태의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다. 교인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다.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단지 선교의 대상만이 아닌 진정으로 함께하는 가족이며 이웃으로 지역을 이해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4층 건물을 건축하여 비전센터로 이름 짓고 지역사회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⁷⁴

또한 한남제일교회는 “교회만의 목사가 아닌 지역의 마을지기”로 목회하겠다고는 선교적인 목회철학을 목회활동으로 이어갔다. 교회의 건물이 교회 자체만의 것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주민, 기관과 함께 복지와 문화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 교회를 시무하는 오창우 목사는 지역사회를 목회의 장으로 만들어가며,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아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⁷⁵

이것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모습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역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인해 속한 지역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교회 존재의 이유이다.⁷⁶

(4)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빛으로서 교회의 역할

이 세상과 지역이라는 범주에 존재하는 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다.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도 있고,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으며, 생명력이 없는 곳에 생명을

73) Ibid., 210.

74) Ibid., 212.

75) Ibid., 214.

76)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69.

부여하는 기능도 있다. 이 기능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또한 어둠은 스스로를 밝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둠은 존재 그 자체로 어둠일 뿐인 것이다. 그렇기에 어둠이 있는 곳은 빛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지역이라는 곳이 어둠이라면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지역을 향해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빛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음의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도움의 일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이 목표로 했던 바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만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만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회 안에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켜 가는 것이다. 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연합, 균형 안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⁷⁷

아산에 위치한 송악교회는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로”라는 표어를 세우고 지역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복음을 포괄적이며 총체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특히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송악교회는 농어촌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교회이지만, 환경 생명농업, 대안교육, 장애인 자립활동, 이주민 선교 등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주의 깊게 접근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⁷⁸

교회가 지역사회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책임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끊임 없이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77) Ibid., 365.

78) Ibid., 366.

어떠한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알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행해 가는 것이다.

(5) 교회와 지역과의 소통의 중요성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회퍼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에 독일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론적인 비전을 “타자를 위한 교회”를 통해 밝혔다. 그는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만의 안전과 유익만을 추구한 결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독일교회는 이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⁹

“타자를 위한 교회”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비추어 본다면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타자를 위한 교회”를 소통의 개념과 연결시킨다면 그 교회는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통의 개념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또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 상호간의 소통이라는 개념들이다.⁸⁰

교회는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대상이면서, 대등한 인격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귀 기울이며 가능한 바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 인격이 또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인격이 바라는 바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필요에 반응할 때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부름 받은 지역사회와의

79)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390.

80) Ibid., 391.

관계를 맺어갈 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건강한 교제를 이어가야만 할 것이다.

(6) Local Community Church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대로 교회는 지역과 결코 분리되지 생각할 수 없는 공동체이다. 언제나 지역과 함께 하고, 그 지역을 위한 한 부분이 아닌 그 지역과 연합을 이루어 선한 것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일시적인 도움이나 캠페인으로 지역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닌 지역을 아우르며,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일컬어 연구자는 지역 공동체 교회(Local Community Church)라 칭하려 한다.

Local Community Church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그 지역과 함께 성장해 가는 교회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교회는 기울여야 한다. 먼저 연구자와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Local Community Church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해야 한다. 그저 교회의 행사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며 사명임을 전 교회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지역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고, 처지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단지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닌 교회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의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준비과정이 된다. 그리고 그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협력해야 할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없는지를 조사하고 연계를 맺는 작업들을 이어가야 한다. 이 과정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및 홍보, 실행하고 지역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해야 한다.

그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더 큰 신뢰를 가진 관계로 발전되어간다. 이렇게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종교를 가지고 되었을 때 기독교를 선택할 사람들을 일컬어 연구자는 ‘잠정적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려 한다.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역을 이어감을 통해 점차 이 ‘잠정적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역의 주된 목표이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등록하여 일시적으로 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람을 확보하기보다는 ‘잠정적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확보해 가는 것이 Local Community Church의 복음 전파 방법이다. 무엇보다 이 Local Community Church는 명곡교회에 있어서 복음전파의 궁극적인 전략이며 방편이 된다.

제 3 장

창원 지역 연구

1. 역사적 연구

명곡교회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위치하여 있다. 명곡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 살펴면서 먼저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창원시 지명에 대한 소개는 ‘창원시 홈페이지’ 및 ‘의창구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원이란 지명은 조선조 제3대 태종대왕 실록8년(1408) 7월 13일에 ‘의창과 회원의 두 현을 합하여 창원부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 35대 경덕왕 16년(757) 지방제도 정비 시 삼량주를 양주(양산)라 하여 1주 1소경 12군을 두게 되었는데, 이때 골자군을 의안군이라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창원 도호부조에 의하면 의창현은 본래 골자군인데 경덕왕이 의안군으로 고치고, 본래 골포현 이었던 회원현을 합포로 고쳐 의안군의 현령으로 삼았다.⁸¹

고려 때 와서는 현종 9년(1018) 두 현을 금주(김해)의 속읍으로 귀속되었다가 충렬왕 8년(1282) 임오년에 의안을 의창, 합포를 회원으로 승격시킨 이후 조선조 태종 8년(1408) 무자년에 두 현을 합하여 의창의 ‘창’자와 회원의 ‘원’자를 따서 창원부로 만들고 1415년에 도호부로 고쳤다고 문헌은 전한다.⁸²

명곡동은 1997년 7월 14일 창원시의 대동제 시행에 따라 도계동, 명서1동, 명서2동 3개의 행정동이 통합됨으로써 설치되었다. 앞서서 도계동은 1995년 행정동 의안동이 의안동과 도계동으로 분동됨으로써 만들어졌고 명서1동과 명서2동은 1992년 명서동의 분동으로 설치되었다. 명곡동이란 명칭에서 명은 서(西)를 뜻하는 발~바라의 변이형태인 발을 나타내는데서,谷은 골짜기를 뜻하는 골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명은 훈이 밝다 이고,谷의 훈이 골이기 때문에 명곡동은 서쪽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는 것에서 유래된 명칭이라 한다.⁸³

81) 창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 2017년 04월 17일 접속.

82) 창원시 의창구청 홈페이지, “지명유래” [온라인 자료], http://uichang.changwon.go.kr/sub01/sub01_02.jsp, 2017년 04월 17일 접속.

83) 창원시 의창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www.changwon.go.kr/town/myungok/02/02_01.jsp?menucode=142, 2017년 04월 17일 접속.

2. 지리적 연구

1) 지리적 개요

창원은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의 중부남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산, 부산, 사천을 연결하는 동남임해 중화학공업지역내의 대규모 기계공업단지로서 경남 중부지역 산업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창원시와 같은 위도 상에 있는 도시는 부산, 김해, 진주, 광주시 등이며 같은 경도상에 있는 도시는 대구, 영주시 등이며 외국의 경우는 시베리아의 오흐츠크, 만주의 하얼빈, 일본의 나가사키, 호주의 원뎀 등이 이에 속한다.⁸⁴

창원은 위치상 경전선과 남해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창원시는 부산 광역시와 함께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마산만과 진해만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함안과 밀양, 동쪽으로는 부산과 김해, 서쪽으로는 고성군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경상남도 내에서 창원시의 지리적 위치⁸⁵



84) 창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05Changwon/01_01.jp. 2016년 5월 17일 접속

85)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소개”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05Changwon/01_01.jsp에서 사진 발췌, 2016년 5월 17일 접속.

창원시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로 총 다섯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명곡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의창구이다. 의창구에는 동읍, 북면, 대신면, 의창동, 팔용동,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명곡교회는 명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곡동은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이 포함되어 있다.⁸⁶

〈그림 2〉 통합창원시의 행정구별 분류⁸⁷



창원시의 필지수는 413,807필이며, 면적은 747,671,226.5m²이다.⁸⁸ 창원시의 인구로는 1,085,104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의 수는 16,559명이다.⁸⁹ 이 가운데 의창구의 면적은 211.22 m²이며, 인구는 다음과 같다.⁹⁰

86) 의창구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uichang.changwon.go.kr/sub01/sub01_02.jp, 2016년 5월 17일 접속.

87) 의창구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uichang.changwon.go.kr/sub01/sub01_02.jp에서 그림 발췌. 2016년 5월 17일 접속.

88) 창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tat.changwon.go.kr/multipleboard/BoardList.jsp?groupNo=12103>, 이 자료는 2016년 3월 31일 창원시 지적공부등록현황이다, 2016년 5월 17일 접속.

89) 창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tat.changwon.go.kr/multipleboard/BoardList.jsp?groupNo=12103>, 이 자료는 2016년 5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현황이다, 2016년 5월 17일 접속.

90) 창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tat.changwon.go.kr/multipleboard/BoardList.jsp?groupNo=12103>, 이 자료는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며,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5월 17일 접속.

〈표 3〉 의창구 읍면동별 인구수 현황표⁹¹

읍면동별	인구수			세대수
	계	남	여	
합계	254,462	129,855	124,607	100,345
동읍	22,970	11,661	11,309	8,819
북면	29,075	14,734	14,341	10,708
대산면	7,307	3,708	3,599	3,364
의창동	38,071	19,420	18,651	15,344
팔룡동	38,598	19,807	18,791	13,980
명곡동	51,803	26,311	25,492	19,580
봉림동	36,634	19,041	17,593	16,475
용지동	30,004	15,173	14,831	12,075

의창구는 창원부의 읍성이 설치되었던 창원의 뿌리이다. 또한 창원국가산업단지, 차룡공업단지, 테크노파크, 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가 있는 창원산업단지의 중추적인 곳이다. KTX, 고속도로, 종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의 요지이며, 시민들을 위한 창원 스포츠파크, 사격장 등이 위치하여 있다.

(1) 명곡동

명곡동(明谷洞)은 1997년 7월 14일 창원시의 대동제 시행에 따라 도계동(道溪洞), 명서(明西)1동, 명서2동 3개의 행정동이 통합됨으로써 설치되었다. 앞서서 도계동은 1995년 행정동 의안동(義安洞)이 의안동과 도계동으로 분동됨으로써 만들어졌고 명서1동과 명서2동은 1992년 명서동의 분동으로 설치되었다. 주택지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큰 건물은 없는 편이다. 주요 도로는 14번 국

91) 창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tat.changwon.go.kr/multipleboard/BoardList.jsp?groupNo=12103>, 2016년 5월 17일 접속.

도와 명곡로가 T자(字)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고, 산아래로 도로가 나 있다.⁹²

(2) 명서동

명서동은 1986년 11월에 신설된 법정동으로, 1997년 7월부터 행정동인 명곡동(明谷洞) 관할하에 있다. 1992년 9월 명서1동과 명서2동으로 분할되었으며, 1998년 9월 일부가 도계동(道溪洞)에 편입되었다. 공공기관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센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 명서중학교, 명서초등학교 등이 있다. 사회교육시설로는 명서1 사회교육센터, 명서2 사회교육센터가 있다. 명서1 사회교육센터는 1998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규모는 부지 면적 1,048㎡, 건물 면적 204㎡이다. 명서2 사회교육센터는 1998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규모는 부지 면적 1만 1220㎡, 건물 면적 149㎡이다.⁹³

2) 교회 주변에 위치한 주요 장소

(1) 학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19번길 12의 주변에는 상당수의 학교가 있다. 가장 가까운 학교로 명서초등학교가 있다. 명서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로는 도계, 명도, 명곡초가 있으며, 중학교로는 명서, 창원, 명곡여자, 도계중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로는 창원, 창원명지, 창원명곡고등학교가 있다. 이 모든 학교가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기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명곡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회학교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92) 네이버 지식백과, “명곡동” [온라인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85046&cid=43740&categoryId=44171>, 2016년 5월 16일 접속.

93) 네이버 지식백과, “창원시” [온라인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860&cid=40942&categoryId=33947>, 2016년 5월 16일 접속.

(2) 창원 명서 전통시장

교회 바로 옆에 명서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명서 전통시장의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명서 전통시장 기본 현황⁹⁴

면적	종사자수	점포수		상인회원수
		점포	노점	
24,129 m ²	409 명	174	36	210 명

〈표 5〉 명서 전통시장 시설 현황⁹⁵

아케이드	공용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장보기카트기	화장실
5,713 m ²	664 m ²	265 m ²	36대	1대

〈표 6〉 주요판매품목 현황⁹⁶

계	채소	과일	음식점	식육점	떡	의류	수산	기타
210	18	7	50	10	7	30	15	73

(3) 창원종합버스터미널⁹⁷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종합버스터미널로서, 전국에서 처음 시비로 건립되었다. 현재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터미널이 건립되기 전 창원 지역은 대외 교통 체계가 미흡하고 터미널 시설도 뒤떨어지며 운행 횟수도 매우 적어 마산 지역의 터미널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마산 중심의 대중교통을 창원 중심으로 재편, 창원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94) 명서전통시장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msmarket.kr/page/sub12>, 2016년 5월 16일 접속.

95) 명서전통시장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msmarket.kr/page/sub12>, 2016년 5월 16일 접속.

96) 명서전통시장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msmarket.kr/page/sub12>, 2016년 5월 16일 접속.

97) 창원시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changwon.grandculture.net/Contents?local=changwon&dataType=01&contents_id=GC02200091, 2016년 5월 16일 접속.

위해 종합터미널을 건립하였다.

1992년 10월 8일 터미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1993년 3월 24일 민자 유치 사업으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건립이 결정되었고, 1995년 3월 8일 성원토건으로 낙찰되었으나 1998년 1월 9일 성원토건과 계약이 해제되었다. 적정 규모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과 3회의 민자 유치 설명회, 포항터미널 외 5개사 투자의향 상담을 거친 뒤 민자 유치 사업이 보류되었다.

2004년 6월 25일 직영 건립으로 결정되어 2005년 10월 15일 터미널을 착공하였다. 2006년 12월 22일 「창원종합터미널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고, 12월 26일 창원시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터미널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007년 1월 10일 터미널을 준공하였고, 1월 31일 「창원종합터미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대지 면적은 총 26,612㎡이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에는 매표소·사무실·매점·수화물창고·화장실·식당 등이 들어서 있고, 2층에는 사무실·화장실, 3층에는 기사대기실이 있다. 1층 바깥쪽으로 버스 승강장이 있다. 편의시설로 고객주차장과 화물공영주차장이 있다.

3. 경제적 연구

1) 창원의 경제와 산업 개요

명곡교회가 위치해 있는 창원 지역은 예로부터 공업도시로 계획되어 세워졌고, 현재 굴지의 대기업 몇 곳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하청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공단이 세워져 있다. 도시의 설립 특성 자체가 계획도시이다 보니 도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보호지역, 이렇게 그 지대가 나뉘어져서 운영 및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대표적인 창원시의 기업으로는 조선업으로는 두산 중공업과 STX조선이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해 현재 중공업을 통한 기업이익을 통해 다른 창원에 위치한 두산의 계열사들을 지탱해가는 상황 가운데 있으며, STX조선의 경우 무리한 경영 및 사업 확장으로 인해 기업에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경상남도의 도움과 지원으로 말미암아 고비를 넘기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전자 산업으로는 LG전자가 있으며,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를 중심으로 하여 제품 생산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군수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한 창원시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를 이어가는 대표 기업 두산과, 또한 소소한 부분들을 이어가는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창원시 내에 소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위치한 ‘르노삼성자동차’와 경남 김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동차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는 관련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창원시 소재 기업 업종별 생산지수⁹⁸

(2015년 / 단위: %)

구분 (가중치)	2014 4Q	2015 4Q	증감율
총지수 (10000.0)	95.1	91.9	-3.4
광업 (2.8)	237.3	195.8	-17.5
제조업 (9997.2)	95.1	91.8	-3.5
1차 금속 (782.8)	84.6	92.8	9.7
금속가공 (1116.0)	117.9	93.2	-20.9
전자부품 외 (499.5)	25.4	59.0	132.3
전기장비 (1368.1)	96.1	107.7	12.1
기계장비 (2932.6)	90.4	77.1	-14.7
자동차 (1093.5)	133.4	141.9	6.4
기타 운송장비 (1472.6)	75.7	76.6	1.2

98) 「창원지역 경제동향보고서」 (창원:창원상공회의소, 2016), 4.

〈표 8〉 창원 국가 산업단지 동향⁹⁹⁾

	2014		2015					
	3Q	4Q	1Q	2Q	3Q	4Q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생산(억원)	137,302	151,234	144,381	148,695	142,940	150,304	-0.6	5.2
수출 (백만불)	4773	5524	4418	4693	4641	4781	-13.5	3.0
입주업체 수(개)	2346	2366	2408	2422	2482	2573	8.7	3.7
가동업체 수(개)	2184	2238	2271	2300	2384	2474	10.5	3.8
건설중	162	128	137	122	98	99	-22.7	1.0
업체(개)	77.8	81	84.6	82.5	79.9	81.7	0.7p	1.8p
제조업	10,685	104,497	111,823	111,640	115,369	116,672	11.7	1.1

이와 같은 기업들이 기반을 잡고, 중소기업, 하청기업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가운데, 그러한 산업의 특성상 창원 지역에는 다른 경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업단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창원시에 위치한 두 개의 행정구, 성산과 의창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아래의 자료와 같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아 노년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99) 「창원지역 경제동향보고서」, 5.

〈표 9〉 창원시 고용 현황¹⁰⁰

	2013		2014		2015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5세 인구(천명)	887.5	887.1	884.1	886.5	888.1	888.6	0.2%
경제활동인구(천명)	519.7	522.9	530.6	517.6	528.0	524.7	1.4%
취업자(천명)	505.3	509.2	515.3	505.4	512.4	508.1	0.5%
실업자(천명)	14.4	13.7	15.2	12.2	15.6	16.6	36.1%
비경제활동인구(천명)	367.8	364.2	353.5	368.9	360.0	363.8	-1.4%
경제활동참가율(%)	58.6	58.9	60.0	58.4	59.5	59.1	0.7%p

2) 의창구 명서동의 경제적 특징 및 명서 전통시장

명서동의 지역적인 특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밀집지역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명서 전통시장이다. 명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이 지역은 시장을 중심부에 둔 주거지역으로서 특별히 2층으로 이루어진 많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느 주택이든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주택을 보유한 주인은 1명일 수 밖에 없다. 즉 주택 소유주를 제외하고는 세입자라는 사실이다. 명곡교회가 위치한 명서동 지역의 주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2층짜리 주택이지만 단지 2가구만이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의 주택은 1층 안채, 바깥채, 2층 안채, 바깥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한 주택에 평균적으로 3~4가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다는 말이고, 세대 수 의 70% 이상은 자신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가구부터 시작해서,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및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도 포함이 되어있다. 자연스레 교육, 문화, 경제적 수준이라는 부분에서 낙후될 수 밖에 없다.

명서동 주거 지역의 거주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지가로

100) 「창원지역 경제동향보고서」, 8.

인해 이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의 1차 거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명서동에서 생활을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가정들은 직장과 가깝거나 자녀들의 교육에 더욱 유용한 주변 지역 내지는 아파트로 이주를 해 나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이들은 명서 전통시장 상인 내지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등으로서 그들이 상당수의 명서동 인구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소득으로 보았을 때 소득의 성장이 있는 가정들이 계속해서 외부로 나가기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주목할 수가 없다.

3) 명서동의 경제현황이 명곡교회에 미치는 영향

명곡교회는 총 8개 교구 27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10개 구역이 명서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 외에도 의창구 소재 내에 있고, 명서동 주변에 위치한 도계동, 봉곡동이 7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서동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봉곡동과 도계동도 의창구의 타 지역, 창원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열악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70% 이상은 이 지역에서 오는 이들이고, 이는 곧 이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 역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얻어 낼 수가 있다. 그렇기에 가장 많은 잠재적인 교인들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을 위한 범위를 결정할 때 명곡교회가 가장 많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역은 다름 아닌 명서동과 그 주변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에게 걸맞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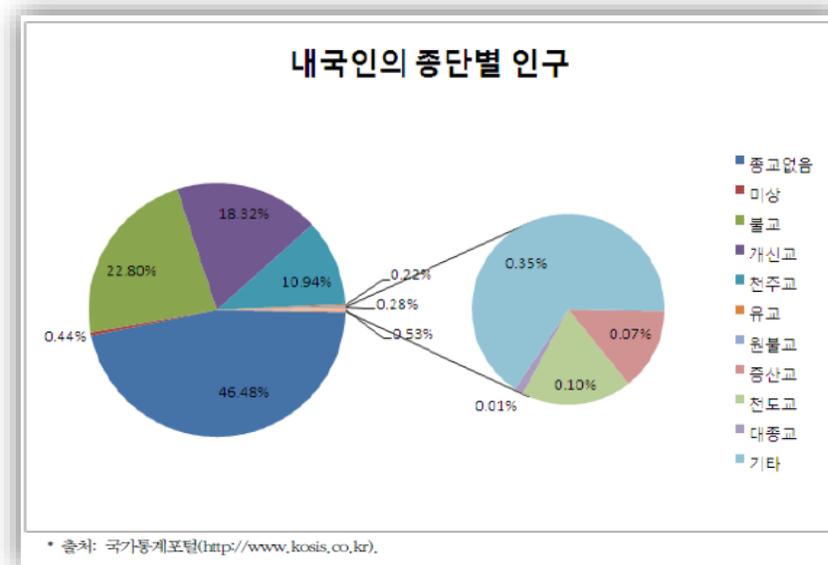
4. 종교적 연구

1) 한국의 종교현황

〈표 10〉 한국의 종교 현황¹⁰¹⁾

단위: 명(전국 집계)

내국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47,041,484	10,726,468	8,616,488	6,146,147	104,676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129,907	34,550	45,836	8,766	163,086



2005년의 자료에 의하면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22.80%를 차지한 불교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18.32%로 두번째로 큰 종교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3위는 천주교는 10.94%이다.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무려 46.48% 인 것은 아직도 추수할 추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들이 왜 종교를 가지지 않는지를 알아보고 대처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01) 2005년 통계청 자료, 한국의 종교 현황 분석.

2)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표 11〉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¹⁰²

(문) 귀하께서 현재 종교를 믿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97년	2004년	2014년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23	14	19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10	18	15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9	21	18
관심이 없어서	26	37	45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반대로	4	2	1
용기가 없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4	2	2
기타/모름/응답거절	14	6	0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7가지 이유로 물어 보았을 때에 시대에 따라 그 치수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언제나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이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1997년에서 2014년으로 오는 동안에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19% 이상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다. 1997년도에 비하여 2014년에는 4%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종교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매스컴을 통하여 전달되면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곧바로 “관심이 없어서”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와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는 과거와 지금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는 더 바쁘고 체감 시간이 훨씬 더 짧아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타/모름/응답거절”이 1997년도에는 14%, 2004년에는 6%, 2014년에는 0%인것인 것 보

102)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 2014), 29.

아서, 과거에는 종교에 대하여 생각이 없거나 자신의 주관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 2014년도에는 기타 응답이 한명도 없는 만큼 이 주제에 대하여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각자의 주장이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14%에 해당하는 비율이 곧 “관심이 없어서”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와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라고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별 종교 현황을 통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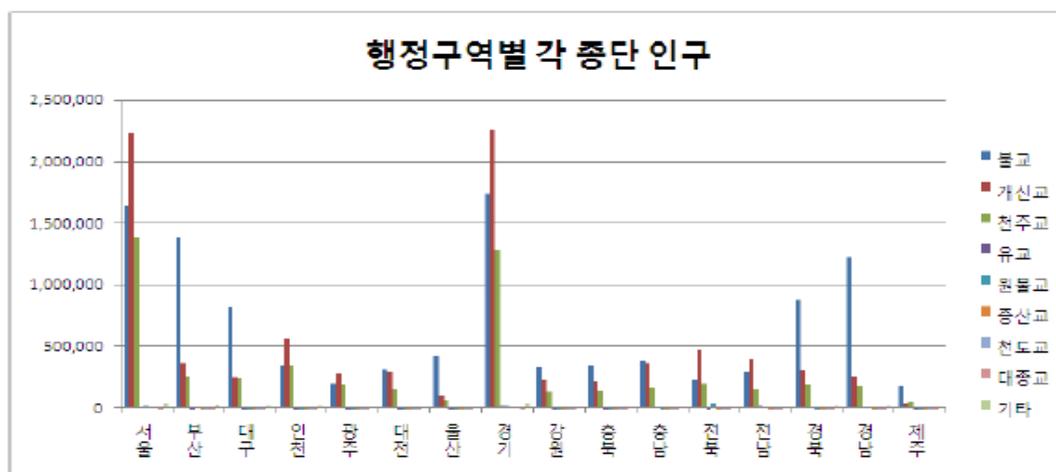
〈표 12〉 지역별 종교 현황 및 인구¹⁰³

단위: 명(2005, 통계청)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서울	1,642,687	2,222,831	1,382,264	12,777
부산	1,378,384	364,592	261,410	2,971
대구	821,042	255,593	240,230	2,433
인천	348,361	563,433	345,843	3,865
광주	203,429	278,884	183,787	2,859
대전	314,286	295,330	153,867	1,369
울산	415,726	99,571	66,991	759
경기	1,741,401	2,260,594	1,286,104	16,473
강원	336,293	227,437	132,936	4,127
충북	345,972	219,742	143,284	2,118
충남	386,082	367,536	171,586	7,326
전북	227,364	467,454	202,959	5,124
전남	292,747	396,183	157,333	21,108
경북	878,609	299,636	184,100	10,587
경남	1,220,542	269,489	178,689	8,992
제주	173,658	38,183	54,764	1,687
전국	10,726,463	8,616,438	6,146,147	129,907

103) 2005년 통계청 자료. 한국의 종교 현황 분석.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서울	21,084	6,499	12,606	887	34,342
부산	7,233	3,511	2,533	245	22,893
대구	1,877	3,090	1,703	246	11,328
인천	2,936	1,148	2,529	197	9,414
광주	4,964	990	1,316	87	3,568
대전	3,560	1,578	1,264	100	3,066
울산	1,342	681	724	37	6,581
경기	16,841	6,787	9,993	606	29,282
강원	1,624	1,297	1,116	176	3,034
충북	1,114	967	1,106	101	2,486
충남	3,108	1,079	2,051	193	2,755
전북	41,596	1,673	1,932	134	3017
전남	11,199	728	1,363	106	3296
경북	2,227	1,881	2,164	254	10626
경남	8,006	2,491	2,920	368	15307
제주	1,212	350	617	29	2090
전국	129,907	34,550	46,836	3,766	163,085



2005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율로 보았을 때에는 수도권 보다는 전라도 지역이 기독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창원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남지역은 완전히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남/부산 지역에서는 월등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는 불교 다음으로 많은 종교이지만 불교신자들의 숫자에 비하여 겨우 1/5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앞선 통계의 결과로 볼 때 부산/경남에 위치한 기독교는 다른 지역의 기독교에 비하여 지역 사회에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기독교가 가진 장점, 교회가 가진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을 위해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되며, 교회는 마땅히 이 일을 위해 힘써야만 한다.

4) 13세 이상 인구의 주말, 휴일 여가활동

〈표 13〉 13세 이상 인구의 주말, 휴일 여가활동¹⁰⁴

특성별	2011 - 단위 : %							
	계	TV,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인터넷 등	창작적 취미
계	100	36.1	4.1	3.2	1.1	5.3	6.1	1.5
남자	100	38.5	5.3	2.6	1.7	8.6	9.1	1.4
여자	100	33.8	5.3	2.6	1.7	8.6	9.1	1.4
13~19세	100	31.0	1.0	3.8	0.4	2.1	3.2	1.6
20~29세	100	30.5	2.9	8.3	1.9	3.9	11.6	1.6
30~39세	100	32.9	6.0	4.4	1.4	4.7	4.7	1.5
40~49세	100	35.4	5.2	2.4	0.8	8.0	1.7	1.4
50~59세	100	36.8	6.0	1.1	0.9	6.8	1.1	1.3
60세이상	100	47.2	2.0	0.4	0.4	2.9	0.5	1.2
65세이상	100	48.9	1.4	0.2	0.4	2.3	0.5	1.1
초졸이하	100	44.8	1.3	0.7	0.3	2.3	6.4	0.9
중졸	100	38.1	2.2	2.0	0.7	4.5	10.6	1.6
고졸	100	37.1	4.5	2.8	1.4	5.1	6.1	1.2
대졸이상	100	29.5	6.0	5.6	1.3	7.4	4.1	2.1

104) 2011년 통계청 자료. [온라인 자료],

http://changwon.grandculture.net/Contents?local=changwon&dataType=01&contents_id=GC02200091, 2016년 5월 17일 접속.

특성별	2011 - 단위 : %							
	계	자기개발	봉사활동	종교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관련일	기타
계	100	2.6	0.2	9.2	13.2	10.1	6.6	0.6
남자	100	2.9	0.2	6.6	4.2	11.6	6.5	0.7
여자	100	2.9	0.2	6.6	4.2	11.6	6.5	0.7
13~19세	100	2.2	0.2	11.7	22.0	8.6	6.7	0.5
20~29세	100	5.3	0.2	4.7	6.0	8.5	14.1	0.3
30~39세	100	1.9	0.1	7.0	19.2	10.4	5.5	0.4
40~49세	100	1.2	0.2	11.2	16.9	11.2	3.5	0.9
50~59세	100	1.1	0.4	12.6	15.7	10.8	4.3	1.1
60세이상	100	0.3	0.2	12.7	14.1	12.2	5.3	0.5
65세이상	100	0.2	0.2	12.6	13.4	12.8	5.7	0.4
초졸이하	100	1.2	0.1	8.5	14.9	12.1	5.8	0.6
중졸	100	5.1	0.3	7.3	11.1	9.1	6.1	1.2
고졸	100	1.8	0.3	8.6	13.7	10.1	6.6	0.6
대졸이상	100	3.2	0.2	11.0	12.5	9.4	7.3	0.4

한국사람들이 주말 및 휴일을 동안에 가장 많은 활동을 차지하는 것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TV, DVD 시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비율도 다른 활동에 비하여 압도적이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주말 및 휴일 동안에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종교활동”영역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세대는 10대와 20대이다.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이 절반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10대는 4%, 20대는 4.7%에 그칠 뿐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이들이 곧 20~30년 뒤에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 기독교의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고작 4%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10대와 20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교회는 10대와 20대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장학금이나,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돕는 활동들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음악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교회

사역에 가미하여, 끊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명곡교회 주변의 무작위로 선택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지가 회수된 253건을 대상으로 결과를 연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300건이었으며 응답율(회수율)은 84.3%였다. 설문은 2016년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었다. 통계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12.0.1이다.

1. 빈도분석

1) 당신의 나이는 몇 세인가?

〈표 14〉 나이

연령	빈도	퍼센트
10-19	10	4.1
20-29	37	14.9
30-39	58	23.0
40-49	48	18.9
50-59	72	28.4
60-69	28	10.8
합계	253	100.0

설문 조사 결과 나이 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30~40대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설문조사시에 교회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명곡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영향 때문이다.

2)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

〈표 15〉 성별

성별	빈도	퍼센트
남	29	12.2
여	224	87.8
합계	253	100.0

성별을 묻는 조사에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설문을 조사하는 시간대가 주로 평일 낮시간대이며, 주로 그 시간에 집에 상주하고 있는 이들은 중년 여성으로 구성된 가정주부들이다. 또한 명곡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도 대부분 여성일 경우가 많다. 그런 연고로 다음과 같은 설문의 결과가 나왔다.

3)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

〈표 16〉 종교 여부

	빈도	퍼센트
1 불교	72	28.4
2 카톨릭	16	6.8
3 기독교	65	25.7
4 무교	89	35.1
5 기타	10	4.1
합계	253	100.0

응답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무교가 가장 많고, 불교, 기독교가 그 다음의 순위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의 인구는 전체 기독교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많고, 동시에 명곡유치원 부모 중에 기독교 인구가 많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교와 기타를 응답한 비율이 40%에 되는 것은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인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다.

4) 창원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 17〉 창원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지명	빈도	퍼센트
1 명서전통시장	179	70.3
2 하남천	0	0
3 명곡교회	45	18.9
4 태복산	14	5.4
5 기타	4	1.4
미응답	10	4.1
합계	253	100.0

본 설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명서전통시장이다. 명곡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지 자체가 명서 전통시장과 100m 이내에 근접하여 있고, 무엇보다 이 지역 자체가 명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곡교회는 명서 전통시장 다음으로 많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음을 설문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 창원 명서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물이나 단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 18〉 창원 명서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물 단체

기관 및 건물명	빈도	퍼센트
1 의창구청	38	14.9
2 파티마병원	106	41.9
3 명서초등학교	26	10.8
4 명곡교회	69	27.0
5 기타	3	1.4
미응답	9	4.1
합계	253	100.0

본 설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명서동을 포함하고 있는 의창구 지역에 위치한 병원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파티마병원이다.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찾는 경우가 있고, 주민의 대다수가 방문을 하고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명곡교회는 파티마병원 다음으로 많은 응답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같은 명서동에 위치한 명서초등학교나 의창구청보다는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타 종교시설에 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6) 현재 창원 명서동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 19〉 창원 명서동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항목	빈도	퍼센트
1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67	25.7
2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97	37.8
3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돌봄	10	4.1
4 독거노인들을 돌봄	48	20.3
5 한부모가정에 대한 돌봄	14	5.4
6 기타	3	1.4
미응답	14	4.5
합계	253	100.0

본 설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37.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는 개인 혼자만의 여유와 힘으로 쉽게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기에, 더욱 지역사회나 주변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명서동 지역에서는 문화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확충이 시급함을 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표 20〉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항목	빈도	퍼센트
1 전도(선교)	59	23.0
2 문화공간을 제공	35	13.5
3 사회복지(구제)	117	45.9
4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23	9.5
5 기타	5	2.6
미응답	13	4.5
합계	253	100.0

본 설문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은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사회복지(구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45.9%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수가 이를 필요로 함을 느낄 수가 있다.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필요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창원시 내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명서동 지역의 특성상, 이를 국가나 관공서가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기에 제3자를 통한 협력과 후원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필요성을 교회에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이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8) 창원시 명서동의 명곡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표 21〉 창원시 명서동 명곡교회 인지도

	빈도	퍼센트
1 잘 알고 있다	183	71.6
2 들어본 적은 있다	48	18.9
3 전혀 모른다	3	1.4
4 관심 없다	6	2.7
미응답	13	5.4
합계	253	100.0

본 설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이며 그 다음은 “들어본 적은 있다”라는 것이다. 이 두 응답의 비율을 합쳤을 때 90%가 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명서동 명곡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사람들 1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7명은 명곡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2명은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보통은 지역에 교회가 있고, 관련된 내용물이나 간판을 보더라도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는데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 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지역 내에 잘 알려져 있는 교회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9) 명곡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 아는 것이 있는가? (복수응답 가능)

〈표 22〉 지역사회를 위한 명곡교회 프로그램 인식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1 빛의 향연	174	67.6
2 명서시장 살리기	97	37.8
3 밝은골카페	97	37.8
4 지역사회 인재양성	42	16.2
5 택시타고 오기 운동	14	5.4
6 원보이스 창원	7	2.7
7 경로대학	59	23.0
8 명곡유치원	90	35.1
9 문화대학	24	9.5

위 설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설문과 조사 방법과 결과의 차이가 있다. 이 질문에는 복수응답을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최대 3가지 항목까지 기입한 응답자도 있었다. 그렇기에 다른 설문의 경우에는 각 항목의 빈도수에 전체 빈도수를 나누어 퍼센트를 도출해 냈지만, 이번 설문은 각 항목의 빈도수에 전체 인원수를 나누어 퍼센트를 도출해 냈다. 그렇게 나온 결과로, ‘빛의 향연’을 경험한 이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항목의 내용들에 비해 빛의 향연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밤만 되면 이 지역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명곡유치원’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은 응답자의 많은 부류가 유치원 학부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10) 명곡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복수응답가능)

〈표 23〉 지역사회를 위한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1 빛의 향연	139	54.1
2 명서시장 살리기	31	12.2
3 밝은골카페	31	12.2
4 지역사회 인재양성	3	1.4
5 택시 타고 오기 운동	20	8.1
6 원보이스 창원	14	5.4
7 경로대학	7	2.7
8 명곡유치원	73	28.4
9 문화대학	20	8.1

빛의 향연이라는 이라는 행사의 특성이 교회 주변에 트리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 사진을 찍는 등의 참여를 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명곡유치원은 교회 부설 유치원이고, 밝은골카페는 교회 내 비전누리문화원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서시장 역시 교회와 인접한 곳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이 항목들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교회가 많은 이들이 찾아 오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지역에 교회를 알리는 좋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명곡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를 표시하라.

〈표 24〉 지역사회를 위한 명곡교회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	빈도	퍼센트
1 매우만족	80	31.1
2 만족	66	25.7
3 보통	31	12.2
4 불만족	9	4.1
5 매우 불만족	0	0
미응답	67	27.0
합계	253	100.0

다른 설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응답율이 높은 편¹⁰⁵이지만, 전체 비율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105)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나온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12) 명곡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가?

〈표 25〉 명곡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했으면 하는 분야

대상	빈도	퍼센트
1 미취학아동	23	9.5
2 초등학생	17	6.8
3 청소년	23	9.5
4 대학생	7	2.7
5 성인	3	1.4
6 노인	35	13.5
7 지역 상권	31	12.2
8 저소득층	45	17.6
9 지역문화생활	10	4.1
10 기타	10	4.1
미응답	49	18.9
합계	253	100.0

항목	빈도	퍼센트
도서관	7	2.7
독서교실	3	1.4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3	1.4
멘토링	14	5.4
무료급식	14	5.4
무료컴터	3	1.4
문화교실	28	10.8
문화센터	3	1.4
밑반찬지원	7	2.7
방학기간 중 방과후반	3	1.4
봉사활동	10	4.1
빛축제체험시설	3	1.4
상품권배부	3	1.4
연료비지원	17	6.8
유치원	10	4.1
의료비지원	14	5.4
자연견학	3	1.4
전도	3	1.4
전통시장 상품권	14	5.4
전통시장 활성화	3	1.4
주차장개방	3	1.4
한부모 가정 돌봄	3	1.4
미응답	80	31.1
합계	253	100.0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이 설문은 두 가지의 결과를 담은 항목표를 도출해 내고 있다.

위에 나타나는 표는 이 지역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와 어떤 부분을 도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인적, 물질적인 도움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교실과 같은 문화적 기여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교차분석

1) 나이대별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교차 분석표

〈표 26〉 나이대별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교차 분석표

		지역을 대표하는 것						전체
		명서전통시장	하남천	명곡교회	태복산	기타	미응답	
나이	10~19	0	0	10	0	0	0	10
	20~29	21	0	17	0	0	0	38
	30~39	38	0	9	3	3	3	56
	40~49	42	0	7	0	0	0	49
	50~59	59	0	3	3	0	7	72
	60~69	20	0	0	6	0	0	26
전체		180	0	46	12	3	10	253

창원 명서동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30~50대는 시장을 선택했고, 10대~20대는 명곡교회를 선택했다. 30대~50대는 시장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을 선택했고, 10~20대는 다양한 교회의 문화 활동에 참여 했음을 알 수 있다.

2) 나이대별 명서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관단체 교차 분석표

〈표 27〉 나이대별 가장 알려진 명서동 기관단체 교차 분석표

		기관단체						전체
		의창구청	파티마병원	명서초등학교	명곡교회	기타	미응답	
나이	10~19	0	0	0	7	3	0	10
	20~29	0	10	7	21	0	0	38
	30~39	0	38	3	13	0	3	57
	40~49	3	28	7	9	0	0	47
	50~59	24	21	7	9	0	7	68
	60~69	10	9	3	3	0	0	25
전체		37	106	27	62	3	10	253

창원 명서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물에 관한 질문에서 40~60대는 의창구청과 파티마병원을 선택했고, 10~30대는 병원과 초등학교, 명곡교회를 주로 선택했다. 40~60대는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10~30대는 교육과 종교에 관심이 많다.

3) 나이대별 명서동 지역필요에 대한 교차 분석표

〈표 28〉 나이대별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지역필요							전체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돌봄	독거노인 들을 돌봄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기타	미 응 답	
나 이	10~19	3	0	3	0	0	0	3	9
	20~29	14	17	0	3	3	0	0	37
	30~39	28	10	0	10	7	0	3	58
	40~49	10	17	7	10	3	0	0	47
	50~59	10	42	0	15	0	0	7	74
	60~69	0	10	0	15	0	3	0	28
전체		65	96	7	53	13	3	13	253

창원 명서동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일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도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행복 편차가 높지 않은 것으로 봐서, 모든 연령대가 학생들을 위한 공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 보다 높은 연령층에서 ‘독거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4) 나이대별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야 할 역할 교차 분석표

〈표 29〉 나이대별 교회의 지역사회 역할 교차 분석표

		교회의 역할						전체
		전도 (선교)	문화 공간을 제공	사회복지 (구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기타	미응 답	
나이	10~19	7	0	0	0	0	3	10
	20~29	14	10	14	0	0	0	38
	30~39	10	10	24	10	0	3	57
	40~49	21	7	17	3	0	0	48
	50~59	3	7	42	10	3	7	72
	60~69	7	0	21	0	0	0	28
전체		62	34	118	23	3	13	253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사회복지와 구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특히 50대가 사회복지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긴 했지만 모든 연령층이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5) 나이대별 명곡교회에 대해서 아는지의 여부 교차 분석표

〈표 30〉 나이대별 명곡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명곡교회에 대해 아는 정도					전체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미응답	
나이	10~19	10	0	0	0	0	10
	20~29	35	0	0	3	0	38
	30~39	52	3	3	0	0	58
	40~49	42	7	0	0	0	49
	50~59	31	28	0	3	10	72
	60~69	14	9	0	0	3	26
전체		174	47	3	6	13	253

창원시 명서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명곡교회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명 중 53명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14명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통계는 명곡교회가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이 증명된다.

6) 나이대별 명곡교회가 진행한 프로그램을 아는지의 여부 교차 분석표

〈표 31〉 나이대별 명곡교회 프로그램 인지도 교차 분석표

		알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
		빛의 향연	명서시장 살리기	밝은골 카페	지역사회 인재 양성	택시 타고 오기 운동	원 보이스 창원	경로 대학	명곡유치원	문화 대학	미응답	
나이	10~19	10	0	0	0	0	0	0	0	0	0	10
	20~29	38	0	0	0	0	0	0	0	0	0	38
	30~39	49	0	0	3	0	0	0	7	0	0	59
	40~49	24	3	10	0	0	0	0	7	0	3	47
	50~59	38	14	7	0	0	0	3	0	0	10	72
	60~69	14	3	3	0	0	0	7	0	0	0	27
전체		153	20	20	3	0	0	10	14	0	13	253

명곡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 ‘빛의 향연’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빛의 향연은 명서동 지역의 질 높은 문화행사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행사이다. ‘빛의 향연’ 축제는 명서시장과 연계되어서 시장 경제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서시장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빛의 향연 다음으로 명서시장 알리기에 대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이는 지역의 행사 유치와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다.

7) 나이대별 명곡교회가 진행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교차 분석표

〈표 32〉 나이대별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교차 분석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전체
		빛의 향연	명서 시장 살리기	밝은골 카페	지역 사회 인재 양성	택시 타고 오기 운동	원보이스 창원	경로대학	명곡유치원	문화대학	미응답	
나이	10~19	10	0	0	0	0	0	0	0	0		10
	20~29	31	0	0	0	0	0	0	3	0	3	37
	30~39	35	0	3	0	0	0	0	17	0	3	58
	40~49	21	3	3	0	0	0	0	7	0	14	48
	50~59	28	7	0	0	0	0	0	3	0	35	73
	60~69	14	0	7	0	0	0	0	3	0	3	28
전체		139	10	13	0	0	0	0	33	0	58	253

명서동 지역주민들에게는 ‘빛의 향연’이 대표적인 축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빛의 향연은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곡 유치원’에 대한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서,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많이 거주한다.

8) 나이대별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에 대한 교차 분석표

〈표 33〉 나이대별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교차 분석표

		참여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 없음	미응답	
나이	10~19	7	3	0	0	0	0	0	10
	20~29	10	14	3	3	0	0	7	37
	30~39	35	10	0	3	0	0	10	58
	40~49	17	14	7	0	0	0	10	48
	50~59	10	21	7	3	0	0	31	72
	60~69	0	3	14	0	0	0	101	28
전체		79	65	31	9	0	0	179	253

지역사회를 위한 명곡교회의 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명곡교회의 프로그램이 지역을 위한 행사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결과이다. 만약 교회만을 위한 행사였다면 그들은 결국 불만족을 나타냈을 것이다. 특히 30대의 젊은 청년이나 부부들의 상당수가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런 행사들이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 나이대별 명곡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길 바라는 부분 교차 분석표

〈표 34〉 나이대별 명곡교회의 지역사회 기여 기대영역 교차 분석표

		지역사회 기여 기대영역										전체	
		미취학 아동	초등 학생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지역 상권	저소득층	지역 문화 생활	기타		미응답
나이	10~19	0	3	3	0	0	0	0	0	0	3	0	9
	20~29	0	3	10	0	0	0	3	10	3	0	7	36
	30~39	14	10	3	0	0	3	3	10	0	0	14	57
	40~49	10	0	3	3	3	3	7	7	0	3	7	46
	50~59	0	0	3	0	0	17	10	17	7	3	14	71
	60~69	0	0	0	3	0	10	7	0	0	0	7	27
전체		24	16	22	6	3	33	30	44	10	9	49	253

명서동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바라는 기여분야는 대체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본다면 10대에서 30대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과 같은 다음세대에 관한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0대에서 60대의 주민들은 주로 노인복지와 지역상권, 저소득층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령층을 종합해 봤을 때, 지역주민들은 교회가 다양한 복지 분야에 참여하길 원한다.

10) 종교에 따른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교차 분석표

〈표 35〉 종교에 따른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교차 분석표

		명서동을 대표하는 것						전체
		명서전통시장	하남천	명곡교회	태복산	기타	미응답	
종교	불교	62	0	7	0	0	3	72
	카톨릭	10	0	3	3	0	0	16
	기독교	35	0	24	4	3	0	66
	무교	69	0	15	3	0	3	90
	미응답	3	0	0	3	0	3	9
전체		179	0	49	13	3	9	25

종교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종교인이 명서동의 대표 장소를 명서 전통시장으로 응답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비기독교인중에서 명곡교회를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뽑은 사람이 7명이 되었다. 이는 비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는 명서전통시장과 함께 명곡교회를 대표기관으로 답한 것은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원함을 보여준다.

11) 종교에 따른 명서동에서 가장 알려진 기관단체 교차 분석표

〈표 36〉 종교에 따른 가장 알려진 명서동 기관단체 교차 분석표

		기관단체						전체
		의창구청	파티마병원	명서초등학교	명곡교회	기타	미응답	
종교	불교	28	21	3	17	0	3	72
	카톨릭	3	7	0	3	0	0	13
	기독교	0	24	13	28	0	0	65
	무교	7	52	7	17	2	3	88
	미응답	0	3	3	0	0	2	8
전체		38	107	26	65	2	8	253

이런 명서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단체 비율이 의창구청보다 명곡교회가 높은 것은 이례적이다. 불교는 구청과 병원 다음으로 명곡 교회를 꼽았고, 카톨릭은 파티마 병원과 함께 명곡교회를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뽑았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명곡교회를 가장 잘 알려진 기관으로 선택했다. 파티마병원 다음으로 명곡교회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교회가 선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함을 보여준다.

12) 종교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표 37〉 종교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지역 필요							전체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돌봄	독거 노인들을 돌봄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기타	미응답	
종교	불교	7	42	0	21	0	0	3	70
	카톨릭	0	10	3	3	0	0	0	16
	기독교	21	17	7	14	7	0	0	66
	무교	35	28	0	10	7	3	7	90
	미응답	3	0	0	3	0	0	3	9
전체		66	97	10	51	14	3	13	253

명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종교별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와 카톨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무교인들은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가장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명서동이라는 지역 특색과 정서로 볼 때, 종교를 막론하고 지역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13) 종교에 따른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야 할 역할 교차 분석표

〈표 38〉 종교에 따른 교회의 지역사회 역할 교차 분석표

		교회역할						전체
		전도(선교)	문화 공간을 제공	사회복지 (구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기타	미응답	
종교	불교	17	10	31	10	0	3	71
	카톨릭	3	3	10	0	0	1	17
	기독교	31	3	28	3	0	0	65
	무교	10	17	45	11	1	7	91
	미응답	0	0	3	0	3	3	9
전체		61	33	117	24	4	14	253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모든 종교가 사회복지와 구제에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와 구제는 교회의 기본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종교인이 교회의 사회복지와 구제를 원한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만큼 지역사회에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사회복지와 구제보다 전도와 선교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전도관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4)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에 대해서 아는지의 여부 교차 분석표

〈표 39〉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 인지 여부 교차 분석표

		명곡교회 알고 있는가?					전체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미응답	
종교	불교	40	24	0	0	7	71
	카톨릭	12	13	0	0	0	25
	기독교	55	3	0	3	0	61
	무교	60	17	3	3	3	86
	미응답	7	0	0	0	3	10
전체		174	57	3	6	13	253

응답자의 대부분이 명곡교회의 행사를 잘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명곡 교회의 행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이제는 대중적인 행사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15)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가 진행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교차 분석표

〈표 40〉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교차 분석표

		참여 여부										전체
		빛의 향연	명서 시장 살리기	밝은 골 카페	지역 사회 인재 양성	택시 타고 오기 운동	원보 이스 창원	경로 대학	명곡 유치 원	문화 대학	미응 답	
종 교	불교	45	7	3	0	0	0	0	0	0	17	72
	카톨릭	10	0	0	0	0	0	0	3	0	3	16
	기독교	42	0	0	0	0	0	0	14	0	10	66
	무교	42	3	7	0	0	0	0	14	0	24	90
	미응답	0	0	3	0	0	0	0	3	0	3	9
전 체		139	10	13	0	0	0	0	34	0	57	253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빛의 향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빛의 향연과 함께 명서시장 살리기에 많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명곡 유치원도 지역사회에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16) 종교에 따른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 교차 분석표

〈표 41〉 종교에 따른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 교차 분석표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미응답	
종교	불교	20	14	21	0	0	17	72
	카톨릭	0	14	0	0	0	3	17
	기독교	28	17	3	3	0	14	65
	무교	30	17	7	7	0	28	89
	미응답	0	3	0	0	0	7	10
전체		78	65	31	10	0	69	253

지역사회를 위한 명곡교회의 행사에 참여한 종교인들은 대다수 만족함을 나타냈다. 명곡교회의 지역행사가 단순히 종교편향적인 행사가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행사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만족도는 차후 교회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교회의 신뢰회복과 전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평가된다.

17)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바라는 것 교차 분석표

〈표 42〉 종교에 따른 명곡교회의 지역사회 기여 기대영역 교차 분석표

		지역사회 기여 기대영역											전체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지역상권	저소득층	지역문화생활	기타	미응답	
종교	불교	7	0	0	0	0	17	24	7	7	4	7	73
	카톨릭	0	0	0	3	0	0	0	7	3	0	3	16
	기독교	10	10	10	3	0	0	3	14	0	0	14	64
	무교	7	7	14	0	3	17	0	17	0	8	17	90
	미응답	0	0	0	0	0	0	3	0	0	0	7	10
전체		24	17	24	6	3	34	30	45	10	12	48	253

불교인은 노인복지와 지역상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카톨릭은 저소득층과 지역문화, 기독교는 아동 및 초등학생,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무교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를 떠나서 지역의 발전과 복지를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종교단체가 이 일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8) 교회 역할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표 43〉 교회 역할에 따른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지역필요							전체
		학생 문화 공간	지역주민 위한 문화시설	다문화 가정 돌봄	독거노인 돌봄	한 부모 가정 돌봄	기타	미응답	
교회 역할	전도(선교)	21	17	3	21	0	0	0	62
	문화공간을 제공	17	14	0	0	3	0	0	34
	사회복지(구제)	17	52	7	31	7	2	0	116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7	14	0	0	3	0	0	24
	기타	3	0	0	0	0	0	0	3
	미응답	0	0	0	0	0	0	14	14
	전체		65	97	10	52	13	2	14

명서동 지역민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꼽았다. 명서동이라는 지역이 소득수준이나 문화수준에 있어 타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다. 그러므로 명서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갈망들이 크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교회를 향하여 ‘사회복지(구제)’에 관한 역할을 감당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교회가 지역의 복지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가 있다.

19) 명곡교회 인지도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표 44〉 명곡교회 인지도에 따른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지역필요							전체
		학생 문화 공간	지역주민 위한 문화시설	다문화 가정 돌봄	독거노인 돌봄	한 부모 가정 돌봄	기타	미응답	
교회 인지도	잘 알고 있다	52	59	10	35	14	3	10	183
	들어본 적은 있다	10	31	0	7	0	0	0	48
	전혀 모른다	3	0	0	0	0	0	0	3
	관심없다	0	7	0	0	0	0	0	7
	미응답	0	0	0	10	0	0	2	12
	전체		65	97	10	52	14	3	12

지역민들이 명곡교회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지역민들이 명곡교회를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독거노인들을 돌봄’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표와 동일하게 지역에 필요한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을 창출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명곡교회는 지역의 필요를 수용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명곡교회 프로그램 인지도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표 45〉 명곡교회 프로그램 인지도에 따른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지역 필요							전체
		학생 문화 공간	지역주민 위한 문화시설	다문화 가정 돌봄	독거노 인 돌봄	한 부모 가정 돌봄	기 타	미응 답	
프 로 그 램 인 지 도	빛의 향연	45	69	3	31	14	3	7	172
	명서 시장 살리기	0	10	3	3	0	0	3	19
	밝은골 카페	0	10	3	7	0	0	0	20
	지역사회 인재양성	3	0	0	0	0	0	0	3
	택시 타고 오기 운동	0	0	0	0	0	0	0	0
	원 보이스 창원	0	0	0	0	0	0	0	0
	경로대학	3	0	0	7	0	0	0	10
	명곡유치원	7	6	0	3	0	0	0	16
	문화대학	0	0	0	0	0	0	0	0
	미응답	7	3	0	0	0	0	3	13
전체		65	98	9	51	14	3	13	253

이 표 또한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그 필요에 교회가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역에 문화시설이 필요하기에 명서동 지역민들은 교회가 행하는 문화행사인 빛의 향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빛의 향연은 어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빛의 향연이 가장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21) 명곡교회 행사 참여에 따른 명서동의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표 46〉 명곡교회 행사 참여에 따른 명서동 지역필요 교차 분석표

		지역 필요							전체
		학생 문화 공간	지역주민 위한 문화시설	다문화 가정 돌봄	독거노인 돌봄	한 부모 가정 돌봄	기 타	미응 답	
행 사 참 여	빛의 향연	49	69	3	7	10	0	3	141
	명서 시장 살리기	0	3	0	3	0	0	3	9
	밝은골 카페	3	0	0	10	0	0	0	13
	지역사회 인재양성	0	0	0	0	0	0	0	0
	택시 타고 오기 운동	0	0	0	0	0	0	0	0
	원 보이스 창원	0	0	0	0	0	0	0	0
	경로대학	0	0	0	0	0	0	0	0
	명곡유치 원	14	3	3	3	3	3	3	32
	문화대학	0	0	0	0	0	0	0	0
	미응답	14	21	3	17	0	0	3	58
전 체		80	96	9	40	13	3	12	253

이 표는 앞의 표와 동일한 결과를 알려준다. 지역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지역민들은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길 때, 주민들이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시각을 내려 놓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2) 세대별 지원요청에 따른 지역 필요 교차 분석표 및 세대별 지원요청에 따른 교회 인지도교차 분석표

〈표 47〉 세대별 지원요청에 따른 지역 필요 교차 분석표

		지역 필요							전체
		학생 문화 공간	지역주민 위한 문화시설	다문화 가정 돌봄	독거 노인 돌봄	한 부모 가정 돌봄	기타	미응답	
지원요청	미취학 아동	10	10	0	0	0	0	3	23
	초등 학생	10	0	3	0	3	0	0	16
	청소년	7	7	0	7	0	0	3	24
	대학생	0	3	3	0	0	0	0	6
	성인	7	0	0	0	0	0	0	7
	노인	0	7	0	21	3	3	0	34
	지역 상권	7	17	0	7	0	0	0	31
	저 소득층	3	21	3	10	7	0	0	44
	지역 문화 생활	0	7	0	0	0	0	3	10
	기타	3	7	0	0	0	0	0	10
	미응답	21	17	0	7	0	0	3	48
전체		68	96	9	52	13	3	12	253

〈표 48〉 세대별 지원요청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교회 인지도					전체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미응답	
지원 요청	미취학아동	21	3	0	0	0	24
	초등학생	17	0	0	0	0	17
	청소년	24	0	0	0	0	24
	대학생	3	3	0	0	0	6
	성인	3	0	0	0	0	3
	노인	10	14	0	0	10	34
	지역상권	28	3	0	0	0	31
	저소득층	35	7	0	3	0	45
	지역문화생활	7	3	0	0	0	10
	기타	7	3	0	0	0	10
	미응답	30	10	3	3	3	49
전체		185	46	3	6	13	253

지역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으므로 이들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가장 많은 필요를 적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명곡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이루고, 어떤 방향으로 목회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23) 명곡교회 행사 인지도에 따른 지역에서의 교회 역할 교차 분석표

〈표 49〉 명곡교회 행사 인지도에 따른 지역에서의 교회 역할 교차 분석표

		교회 역할						전체
		전도 (선교)	문화 공간을 제공	사회복 지 (구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기타	미응답	
행사 인지도	빛의 향연	42	28	73	21	3	7	174
	명서 시장 살리기	0	0	14	3	0	3	20
	맑은골 카페	7	0	14	0	0	0	21
	지역사회 인재양성	0	0	3	0	0	0	3
	택시 타고 오기 운동	0	0	0	0	0	0	0
	원 보이스 창원	0	0	0	0	0	0	0
	경로대학	3	0	7	0	0	0	10
	명곡유치 원	7	3	3	0	0	0	13
	문화대학	0	0	0	0	0	0	0
	미응답	6	3	3	0	0	0	12
	전체		65	34	117	24	3	10

명곡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민들이 사회복지가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그러한 필요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행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교회가 지역민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 필요를 공급하여 줄 때, 지역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교회 행사 참여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표 50〉 교회 행사 참여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교회 인지도					전체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미응답	
행사 참여	빛의 향연	115	24	0	0	0	139
	명서시장 살리기	9	0	0	0	0	9
	밝은골 카페	7	0	3	0	3	13
	지역사회 인재양성	0	0	0	0	0	0
	택시 타고 오기 운동	0	0	0	0	0	0
	원보이스 창원	0	0	0	0	0	0
	경로대학	0	0	0	0	0	0
	명곡유치원	31	3	0	0	0	34
	문화대학	0	0	0	0	0	0
	미응답	21	21	0	7	9	58
전체		183	48	3	7	12	253

이 표는 명곡교회가 명서지역에서 어떤 교회로 소문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명곡교회에서 주관하는 ‘빛의 향연’이라는 행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있다.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을 때, 충분히 교회를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에 따른 교회 역할 교차 분석표 및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표 51〉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에 따른 교회 역할 교차 분석표

		교회 역할						전체
		전도 (선교)	문화공간 을 제공	사회복지 (구제)	지역공동체 의 구심점	기타	미응답	
참여 만족	매우 만족	17	7	38	10	0	8	80
	만족	21	10	21	7	4	0	63
	보통	14	0	17	0	0	0	31
	매우 불만족	0	3	7	0	0	0	10
	미응답	0	0	0	0	0	0	0
		10	14	35	3	0	7	69
전체		62	34	118	20	4	15	253

〈표 52〉 교회 행사 참여 만족도에 따른 교회 인지도 교차 분석표

		교회 인지도					전체
		잘 알고 있다	들어 본 적은 있다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미응답	
참여 만족	매우 만족	73	7	0	0	0	80
	만족	56	10	0	0	0	66
	보통	17	3	0	0	10	30
	불만족	7	0	3	0	0	10
	매우 불만족	0	0	0	0	0	0
	미응답	0	0	0	0	0	0
		31	28	0	6	2	67
전체		174	48	3	6	12	253

위 두 가지의 표는 명곡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첫 번째 도표를 통하여 교회가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가운데 매우 만족과 만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명곡교회가 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역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주었다. 이를 통해 명곡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도표는 명곡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명곡교회가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여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지역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 대충하지 않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행함으로써 지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

지역 교회론의 실현을 위한 교회 역할의 제안

1. 서언

성경에 기록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의 대명사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는 신약 시대 초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지역교회의 모습이라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끊임 없이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의 설문조사와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명곡교회가 위치한 명서동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이 지역과 국가가 온전히 감당해주지 못하는 복지의 부분, 문화의 부분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명곡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기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명곡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지역교회로서의 사역 방향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지역교회론의 구체적인 모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삶을 통하여 한 가지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

을 보여주셨다. 그 방편으로 예수님은 지역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셨다.

교회가 있는 주변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더 나아져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몇 가지 역할을 제안한다.

1) 지역 속에 명곡교회 알리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도 하네’라는 말을 듣도록 하라. 창원 명서동에 있는 명곡교회는 이런 좋은 것들도 하고 있다는 평판을 위해 3가지 노력을 제안한다.

(1) 택시 타고 오기

명곡교회에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10여년을 한결 같이 매월 4주 주일은 택시 타고 오는 날로 지킨다. 자가 차량을 소지한 교인들이 택시를 타고 오는 것은 쉽지 않다. 성도들이 자발적 불편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는 탁월하다.

교회의 지도와 홍보: 교회는 택시 타고 오기의 취지를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한다.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는 선물비를 위한 재정을 써야 하고, 성도는 안타도 되는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교리적으로는 교회가 주일날 돈 써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복음전도가 최우선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시도해 봐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후보광고, 문자메시지, 캠페인 등을 통하여 교육하고 지도한다.

i) 방법

교회 앞에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수건과 음료를 준비하여 택시타고오는 성도가 내릴 때 택시기사님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제공한다. 물론 여름철에는 여름철에 맞는 시원한 음료를 겨울철에는 따뜻한 장갑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택시를 타고

교회를 통해 배운 방법대로 기사님께 정중하고도 상냥히 명곡교회 위치를 설명하며 교회로 모셔다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는 “오늘도 행복하세요.”라고 말을 건 내며 금액을 지불하되 거스름돈은 받지 않는다. 이런 택시 타고 오기의 주안점은 교회와 성도의 친절과 배려, 그리고 지속성이다. 이를 위해 명곡교회는 10여 년을 한결 같이 달려왔다.

ii) 효과

나중에 창원 어디든 택시를 타고 명곡교회를 말하면 기사님들이 알게 된다. 또한 기사님들이 교회에 방문하게 될 때 음료와 수건 등 사소한 관심을 받게 되므로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게 된다. 특히 택시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손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아주 많다. 종교나 교회에 대한 주제로 손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교회를 방문한 기사는 명곡교회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를 하게 된다.

(2) 지역의 대표명소와 인연 맺기

지역 속 재래시장은 지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는 인정이 머무는 사랑방공동체이다. 이 시장과 인연을 맺으면 지역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명곡교회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시장과 인연을 맺어가고 있다.

i) 방법

교회는 교인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연간 정기적으로 시장상품권을 구매하여 나누어주고, 그룹 당 하나의 박스에 시장 물건을 사서 담아오도록 한다. 일제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교인들이 다니며 진귀한 풍경을 만든다. 그리고 이 박스는 잘 포장하여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이웃 돕기로 연결한다. 명곡교회 교인은 어차피 지역 재래시장 고객이며 시장 상인들은 우리 교인들이 명곡교회 다니는 줄 안다. 그리고 이들이 일제히 시장 이용하기라는 플랜을 걸고 시장을 보고 이것을 다시 잘 포장하여 지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행사를 한다고 하니,

당연히 시장 상인들은 명곡교인들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하여 시장과 인연을 맺는다.

또한 교회는 재래시장 행사에 적극 동참한다. 재래시장은 시장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계획하기도 하고 여러 홍보 전단을 나눠 주기도 한다. 이때 교회는 홍보를 위한 전단을 대신 받아 교회 교인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교회 카페를 통하여 지역에 전통시장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또한 시장에서 운영하는 공연 행사에 양질의 진행자를 섭외해 준다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인회에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ii) 효과

교회 행사 시 시장이 나서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초청 행사를 2013년 대규모로 한 적이 있다. 이 때 시장 상인회에서 우리교회를 대신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향해 전단을 나눠 주고 홍보를 해주어 무려 1800여명의 인원이 운집한 가운데 총동원 행사가 은혜 중에 마친 적이 있다. 또한 원보이스 창원이라고 청소년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주므로 창원실내체육관에 5,000명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누리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빛 축제를 함께 모색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이 행사에 시장이 앞장선다. 시장으로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가 될 것이며, 교회는 이 지역에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동계 문화를 선도하는 귀한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아무튼 시장은 우리교회의 든든한 아군이다.

(3) 병원과의 MOU체결

지역의 특성상 소외계층내지 차 상위계층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의료혜택에서 많은 부분 배제되어 취약계층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된다. 이를 교회가 나서서 구제하고 함께 하여 경제 인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바지 한다.

i) 방법

교회와 지역의 병원이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를 체결한다. 교회는 지역의 병원에 고객인 환자들을 모아 보내주고 병원은 교회와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편익을 제공한다. 제공 내용으로는 비과세 항목에 대하여 20%할인, 우선적 진료와 필요시 검진 할인, 극빈자들에 대한 무료의료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는 영향력 있는 기업과 대형병원의 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중병으로부터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책임지고 지원받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ii) 사례

첫째, 세종병원의 경우 명곡교회 교인이거나 명곡교회 소개로 병원을 찾은 지역주민에게는 진료비 20%할인,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20만원 대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본 교회 중요 행사가 있을 시에 건강검진권이나 의약품을 협찬하고 있다. 둘째, 세계로 병원 역시 진료비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고신대 복음병원의 경우 일반 사람들이 종합병원에 갔을 때 겪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시켰다. 즉 덜 기다리고 이 환자에 적합한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자연스레 잡혀지게 되었다.

iii) 효과

첫째, 명곡교회만이 아닌 주변의 이웃, 그리고 차상위 계층까지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혜택을 받은 이들 중에 연간 2가정 이상이 교회에 등록하고 있다. 둘째, 지역 내에 명곡교회의 이미지를 자연스레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잠정적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협약을 맺은 세종병원 역시 개원 3년 만에 경상남도 검진률 1위라는 금자탑을 쌓게 되었다. 넷째, 간단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경제인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2) 인근지역 정화하기

화단의 꽃이 아름답게 피게 하기 위해서는 그 꽃에만 정성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 꽃 주변에 있는 잡초나 돌맹이 등을 제거해 주어야만 꽃이 아름답게 필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만 잘 가꾼다고 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이 선하게 바뀌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때에 교회도 함께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가지 노력을 제안해 본다.

(1) 꿈을 먹고 살지요

‘꿈을 먹고 살지요’는 다음과 같은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어린이날,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어딘가에 가고 싶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고, 그런 아이를 둔 책임감 있는 부모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는 것이다. 대형놀이 공원으로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바쁘고 번잡한 공휴일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안에 머물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꿈을 먹고 살지요’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 안에서 자신의 꿈을 꾸도록 한다.

i) 방법

5월 5일 어린이날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지역 초등학교나 공원 등을 대여하고 그곳에 테마별로 30여 가지의 체험부스를 운영토록 한다. 체험부스에는 경찰, 소방서, 병원 등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의 체험부스를 맡겨도 좋다. 각 부스마다 미션 수행 시 도장을 찍어 기념품을 제공한다.

운영을 위하여 봉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 중,고,대학교(사회복지과, 유아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과)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원봉사자를 충당한다. 이들에게는 본 비전누리문화원에서 봉사점수를 부여한다.

ii) 효과

첫째, 아이들이 자신의 장점을 찾는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부스 체험을 통해 자신이 잘하는 것과 꿈을 발견한다. 그리고 왕중왕전과 같은 즉석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아이들의 각기 다른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꿈을 제시한다.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및 안전모니터링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경찰관 체험, 소방관 체험, 심폐소생술체험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제시한다. 그리고 지역의 행정 기관과 연계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의 화합과 연결을 돕는다. 셋째, 가정의 기쁨이 된다. 가정의 붕괴와 개인주의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가정의 화합을 통해 지역 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결국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지역에 맞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꿈을 먹고 살지요” 를 통해 교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며, 교회적으로 볼 때는, 외부전도가 아니라 학교 속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전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디딤돌이 된다. 그리고 모든 봉사자가 다음세대를 섬기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한다. 다섯째, 봉사자들을 전도의 방편으로 이 행사를 통하여 모집된 봉사자들을 최선을 다해 교회가 섬긴다. 식사도 정성껏 챙겨주고, 봉사점수나 여러 행정적 부분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정확히 보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한 하나의 멤버십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통의 구호나 노래, 단체티를 제작하여 함께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을 서로 다짐한다. 이들이 후에는 우리와 함께 할 교인이 될 수 있다.

(2) 창원 크리스마스 빛의 축제

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생활수준이 낮고, 낙후된 지역이다. 이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양질의 문화를 즐길 수 없는 형편이며, 문화를 즐긴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년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 회식자리에서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문

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년 말을 보낼 방법에 대해, 년 말을 보낼 문화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아름다운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 줄 수 있는 빛의 축제를 준비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계속하여 제공한다면 점점 이 지역의 년 말이 조금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i) 방법

첫째, 교회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교회를 치장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를 위한 일이기에 교회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편히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곳을 빛 축제장으로 꾸며야 한다. 또한 찾아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콘서트를 준비하는 것이다. 빛 축제만을 준비하고 그쳐버리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부족하다. 즐길 거리가 부족하면 결국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치고 만다. 그렇기에 빛 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회, 경품행사, 사랑의 우체통, 깜짝 분식점 등을 열 수 있다. 셋째,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 단독으로 이 일을 진행함에는 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의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이 축제가 지역의 대표적 행사가 되고,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일에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ii) 효과

첫째, 지역에 양질의 문화를 준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줄 수 있

다. 그리고 이런 멋진 문화 장소가 자신의 지역에 있다. 라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다. 둘째, 빛의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방문을 하게 된다. 이들에게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홍보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사랑 나눔 사업

지역 내에는 물질로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의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독거노인, 소년가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다.

i) 방법

의창구청 사회 복지과와 연계하여 구청추천으로 받은 차상위 계층에게 1년간 50가정 이상에게 생계운영비를 적지만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한다. 이 일을 위해 사랑 나눔 방문 팀을 구성하여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하여 물품 등을 지원하며, 연 3회는 시장상품권을 지원하므로 차상위 계층만이 아닌 지역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열리는 바자회나 장터에 연간 500만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이웃 돕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ii) 효과

첫째, 비전누리문화원에서 하는 “꿈을 먹고 살지요”나 “빛축제” 등의 행사에 부담 없이 참여하게 된다. 둘째, 이 일들이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기에 교회에 대한 거부감도 낮아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매년 5가정 이상의 대상자 가정들이 본 교회에 등록하고 있다. 셋째, 의창구청과의 우호적인 연계를 이어감을 통해서 이 사랑나눔 사업만이 아닌 지역을 위한 행사들을 기획하고자 할 때 행정적인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다.

3) 미래의 동료(Ally) 만들기

미래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공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그들에게 주어야지만 미래의 동료를 만들 수가 있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학생들이다. 그리고 이 자라나는 세대들은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노력을 제안한다.

(1) 장학사업

i) 방법

장학사업은 관내에 위치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여 홈페이지 게시 공문 및 학교별 개별 통보를 통해 장학생 추천자를 받고 자체 심사에 의해 결정하여 고등 50만, 중등 30만, 초등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장학금 수여식은 졸업식 때 하게 되고 연간 12개 학교 이상 500만 원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ii) 효과

첫째,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 법적으로 까다로운 이 시대에 학교 안에 들어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둘째, 처음에는 장학금을 직접 찾아가 나누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학교에 공문으로 공지하여 추천을 받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 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2) 인재 양성

i) 방법

지역 내 차상위 계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의 형편으로 사교육이나 교재 구입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총 9개월간 학원비 및 교재구입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등,중등,고등 각 3명을 학교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10만, 중학교20만, 고등학교 25만을 매달 지원하며, 필요한 부분 우수장학금지원을 통한 연간 총 1500만원 이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ii) 효과

첫째, 인재양성 지원을 받은 대상자 학생 모두 그 과목에서 성적향상을 기록했다. 둘째,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받은 학생 중 연간 2명 이상이 본 교회 중.고등부에 등록 정착하고 있다. 셋째, 지원 학생을 교회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선정을 하고 교회는 재정적 지원을 감당하는 역할인지라 학교에서 고마움을 항상 표한다.

(3) 지역 학교와의 MOU 체결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와의 MOU 체결은 원래부터 교회에서 시도하려고 계획한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장학사업과 인재양성 사업을 통하여 학교가 필요한 부분을 교회에서 채워 나가다 보니 학교 측에서 먼저 MOU 체결을 제안해 왔다. 현재 관내에 있는 창원중, 고등학교, 창원남고, 상북초등학교, 명서초, 중학교와 이 일들을 진행해가고 있다. MOU 체결의 결과 학교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고,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창원고에서 일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일본 나고야 지역의 사립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강사를 요청하였

다. 이에 전교 상위 40등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면학반에 본 교회 성도인 수학강사를 지원하여 돕고 있다.

(4) 전략적 연구소 세우기

인재양성 코칭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학교 측에서 MOU 체결 제의가 들어왔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주관으로 하는 교사 세미나의 내용에 “세계시민주의”¹⁰⁶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세계시민교육”¹⁰⁷을 받게 된다. 바르지 않은 사상¹⁰⁸이 주입되어 있는 세계시민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소를 계획했다.

i) 희망연구소(가로등 연구소) 설립 준비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희망연구서를 설립하고 학교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다음세대를 체계적으로 섬겨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업무 첫째,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한다. 둘째,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간부수련회개최 및 캠프프로그램 제공한다. 셋째,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면학 지도반을 운영한다. 넷째, 세미나 개최 및 좋은 강연 강사를 제공한다.

106) ‘세계시민’의 뜻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 지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지구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뉴스, “세계시민교육” 2016년 6월 22일.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1179> [온라인 자료], 2016년 6월 2일 접속.

107)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 지구촌 사회에서 인류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과 환경보호, 인권존중 등의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며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 공식블로그, “교실속 세계시민교육, 당신은 어떤 유형의 세계시민입니까?”, <http://blog.naver.com/seouledu2012?Redirect=Log&logNo=220634788723>, [온라인 자료], 2016년 6월 2일 접속.

108) ‘세계 시민교육’에 허점이 있다.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세계평화와 환경보호, 인권존중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가운데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시민의 참된 모습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약자 안에 동성애자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세계시민교육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하나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이 보다 선진국적 의식이라는 이미지이다. 마치 “세계시민”의식을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후진국적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공식블로그, “교실속 세계시민교육, 당신은 어떤 유형의 세계시민입니까?” <http://blog.naver.com/seouledu2012?Redirect=Log&logNo=220634788723> [온라인 자료], 2016년 6월 2일 접속.

3. 지역사회 사역의 의도

이상과 같은 지역사회 사역을 하게 된 의도는 교회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실제로 다년간 지역 통장/반장 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인식시켰다. 또한 이들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도울지를 항상 고민하고 나눈 결과 지역이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

명곡교회는 가로등 세우기의 일환으로 지역 주차장 문제 해결, 시장의 활성화, 지역 소외계층 돕기 사업, 독거노인 문제 해결, 의료서비스해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과 학교의 필요에 늘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밝은골 카페를 활용한 지역의 사랑방 역할, 빛 축제를 통한 문화선도, ‘꿈을 먹고 살지요’를 바탕으로 한 지역 어린이 문화사역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현재 자연스럽게 교회가 지역에 알려지고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었고 교회의 소리에 지역은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지금은 지역 학교나 관공서 매체들이 교회로 찾아와 좀 더 나은 프로그램과 여러 방법들을 논의 해오고 있다. 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복음전파를 위한 연구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명곡교회가 창원 명서동지역에 구원의 방주역할을 담당하려고 한다.

4. 제언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그 어느 곳보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다할 수 없다. 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허락하여주신 부흥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그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부정과

불합리한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논문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본질을 유지하며, 개교회로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교회에 어떠한 이미지를 새기고, 또한 본인이 사역하는 지역에 잠정적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지역교회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였다. 연구자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러던 중 본 교단 교육대회를 참석하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총회 교육대회의 주제는 ‘교회 교육, 절망에서 건져내다’였다. 이 주제를 통하여 21세기 교회는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본인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론에 감사하였고, 이 길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그러나 그만큼 본 교회처럼 지역교회를 지향하고, 시행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인해 본인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고, 다른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생겨난 교회의 이미지 부분을 설문조사의 통계수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이 부족하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에, 이 연구를 이어갈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지역교회 사역과 전도의 영향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5. 명곡교회가 나아갈 방향

지금 명곡교회는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정립해 놓은 상태이다. 이 계획의 시행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현재 본 교회의 지역복지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교회 부설 비전누리문화원¹⁰⁹의 재단법인화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비전누리문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비전누리문화원이 속해 있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34번지 일대를 복지타운으로 형성하는 일이다.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본 기관을 재단법인화 하려고 한다.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기본출연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최소 수억원대에서 많게는 수십억대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기본출연재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 연간 2억원 대의 지역을 위한 사업의 규모를 더욱 더 확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지역을 위한 사역을 확충하려는 준비 단계이다. 이를 위해 본 교회의 성도들 및 비전누리문화원 회원들과는 재단법인 전환을 위한 설명회 및 비전 제시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2017년 가을 이사회를 거쳐 재단법인화를 확정 짓고, 변경을 위한 작업들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그리고 재단법인화 되고 지역을 위한 사역의 재정 및 제도적인 규모를 확장한 이후에는 비전누리문화원이 속해 있는 명서동 134번지 일대를 모두 매각하여 이 부지 전체를 복지타운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134번지에는 3년 전부터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134-5번지를 제외하고 총 8채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이 중에 6채는 현재 비전누리문화원 건물 및 명곡교회 사택으로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 2채는 인수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109) 2011년 11월 20일에 설립된 명곡교회 부설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상담, 복지, 청소년 전인적 개발과 발전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선도사업을 실시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포함한 소외계층들을 위한 의료, 복지, 사회활동지원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 소외계층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130여명의 후원회원과 1000여명의 민간 교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2월 26일에는 지금까지의 공을 인정받아 창원시 이웃돕기 유공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그림 3〉 명서동 134번지 지도¹¹⁰⁾

복지타운은 지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역을 담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복문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지역과 소통을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다.

먼저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랑나눔사역을 넘어서서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병원을 건설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병원의 주된 특징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혜택의 차이이다. 교회에서 건립하여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혜택을 더욱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병원이다. 이 병원은 치료 및 요양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병원들과 연계하여 검진 및 의료혜택 부과라는 사업을 지향할 것이다.

또한 병원의 개념을 넘어서서 복합적인 힐링타운 구성에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전인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힐링타운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하려 한다. 먼저 손맛사지 및 발맛사지 교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

110) 네이버 지도, “명서동 134번지” [온라인 자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ie=utf8&query=%EB%AA%85%EC%84%9C%EB%8F%99+134%EB%B2%88%EC%A7%80 그림 발췌, 2017년 3월 15일 접속.

다. 그리고 아이부터 청소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대에 맞는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교육을 위한 장으로도 본 공간은 활용될 것이다. 지역 학교들의 간부 수련회 및 교사 세미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음향시설의 확충으로 학교 강당에서 할 수 없는 보다 질 높은 문화공연을 유치 및 장소 제공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음란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자 건전한 문화를 제시하는 문화특강 및 지도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언급한 사역 외에도 명곡교회는 향후 10년 후에 지역에서의 더 나은 소통을 기대하며 이 사역들을 이어가려 한다.

제 6 장

결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자체이며, 세상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며 이상적인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신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신약에서는 더욱 구체화되고,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어왔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지역에 부름을 받고, 지역을 진리와 사랑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명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쉬지않고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해 왔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 왔다. 이러한 결과로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한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친 선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교회 태동 당시 백성들이 일본에 의해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세상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리기를 힘 썼다.

뿐만 아니라 초기 한국교회는 사회변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유교의 영향으로 인권이 무시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천민과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 사역, 병자들을 위한 병원 설립,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본 연구의 초반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재의 위기에 처한 교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위기가 단지 우리시대만의 현상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시대마다 교회는 다양한 위기를 끊임 없이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에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교회의 경력이 되는 어떤 성과나 자기 만족을 위한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길 잃은 자들을 찾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자격은 규모나 재정적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어느 지역이건 그곳에 소재한 교회라면 마땅히 그 자격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하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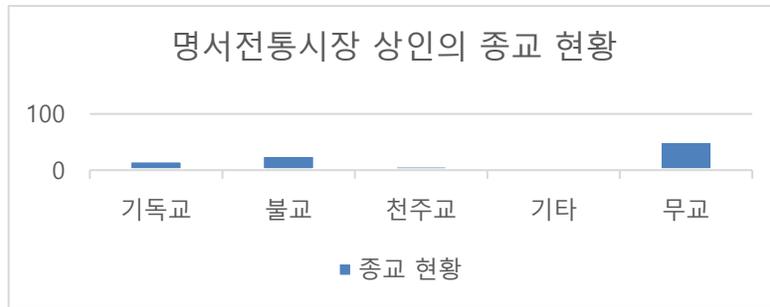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한 줄기 빛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개념을 넘어서서 강도들이 자주 등장하는 곳에 빛인 가로등을 세우는 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강도들이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고, 강도 만난 사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앞서 명곡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 모든 사업의 초점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가로등을 세우는 시도였다. 택시 타고 오기, 지역 재래 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먼저 명곡교회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지원,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하는 “꿈을 먹고 살지요”, 빛의 축제등을 통하여서는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 나가려는 교회의 노력이었다. 또한 학교장학금 전달,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리고 앞으로는 희망연구소를 설립하여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건전한 마인드를 심겨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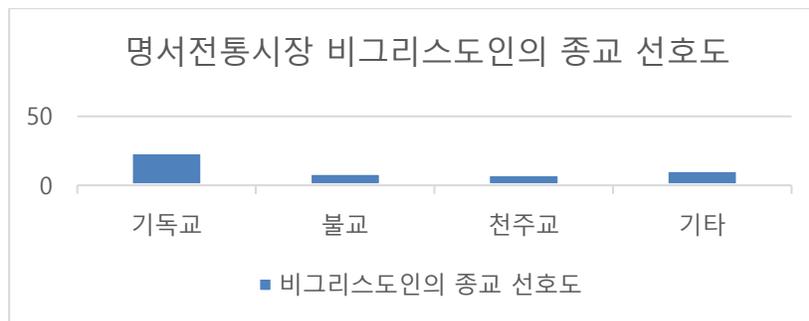
이런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에서 명곡교회는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비록 교회 주변 1Km 이내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인접 초등학교보다 먼저 생각나는 지역의 장소로 여겨지는 부분이 먼저 그렇다. 그리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명곡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 또한 이를 증명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 교회에서 지역을 위해 진행하고 있

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모습 역시, 교회로 지역 사회에 좋은 인식을 남기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나아가 2014년 명서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53〉 명서전통시장 상인의 종교 현황¹¹¹



〈표 54〉 명서전통시장 상인의 잠정적 그리스도인 현황



2014년에 진행된 위 조사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그 중 현재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0%에 못 미치는 52명이었다. 그 52명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어떠한 것을 가지겠냐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그 중의 약 46%에 해당되는 24명의 상인들이 기독교를 선택할 것이라 대답하였다. 2010년에 조사한 무종교인이 호감을

111) 2014년 9월 15일 명서전통시장에 속해 있는 상인 1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된 조사이다. 본 교회 소속 교역자와 교인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명서전통시장 상인과 1:1로 만나 구두로 조사 하였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조사 한 후, 무교라 대답한 이들에게 종교 선호도를 제차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지고 있는 종교¹¹²에서 기독교의 비율인 14.4%와 비교해 보았을 때 3배 이상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이 수치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본 교회로 전도될 가능성이 큰 잠정적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모든 것이 지역 공동체 교회(Local Community Church)를 지향하는 본 교회가 얻게 된 큰 수확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속한 지역에는 늘 크고 작은 필요들이 발생한다.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할 책임이 있는 교회는 마땅히 이 필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한 교회라면 지역사회의 사소한 필요에서부터 근본적인 필요인 복음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

연구자와 명곡교회 역시 이 필요성들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이 땅, 즉 지역에 실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와 사역 노하우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에 나누는 일 또한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한다.

112) 김병연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세미나 발표자료」 20.

- ① 학생들을 위한 문화 공간 ②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③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돌봄
④ 독거노인들을 돌봄 ⑤ 한 부모가정에 대한 돌봄 ⑥기타()

6.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전도(선교) ② 문화공간을 제공 ③ 사회복지(구제) ④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⑤ 기타()

7. 창원시 명서동의 명곡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다 ③ 전혀 모른다 ④ 관심 없다

8. 명곡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 아는 것이 있는가? (복수응답 가능)

- ① 빛의 향연 ② 명서시장 살리기 ③ 밝은골 카페 ④ 지역사회 인재양성
⑤ 택시타고 오기 운동 ⑥ 원보이스 창원 ⑦ 경로대학 ⑧ 명곡유치원 ⑨ 문화대학

9. 명곡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는가?(복수응답 가능)

- ① 빛의 향연 ② 명서시장 살리기 ③ 밝은골 카페 ④ 지역사회 인재양성
⑤ 택시타고 오기 운동 ⑥ 원보이스 창원 ⑦ 경로대학 ⑧ 명곡유치원 ⑨ 문화대학

10. 명곡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를 표시하라.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응답 없음

11. 명곡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가?

- 1) 미취학아동
- 2) 초등학생
- 3) 청소년
- 4) 대학생
- 5) 성인
- 6) 노인
- 7) 지역 상권
- 8) 저소득층
- 9) 지역문화생활
- 10) 기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PPENDIX B
부록 B

Myung-seo Traditional Market's Homepage Use Approval

명서전통시장 홈페이지 게시물 이용 허가

- *신청자: 비전누리문화원(명곡교회)
- *대표자: 이상영
- *연락처: 070-4323-6645
- *목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 수집

연구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2017.3.22

명서전통시장 상인



APPENDIX C 부록 C

Data Use Approval 데이터 사용 승인

NAVER 네이버정책

로그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스팸메일정책](#)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검색결과 수집에 대한 정책](#)

[정보보호 인증](#)

[SOC 인증](#)

책임의 한계

네이버(☞)는 링크, 다운로드, 광고 등을 포함하여 본 웹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 전송되거나, 본 웹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접근되는 정보(이하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상의,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 또는 제안의 결과로서 디스플레이, 구매 또는 취득하게 되는 제품 또는 기타 정보(이하 "제품")의 질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네이버(☞)는 자료 및 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료와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서비스 또는 기타 자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지 이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이버(☞)는 서비스, 자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을 접속함에 있어 사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부적절 하다고 여기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본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검토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본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상의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적법성 또는 도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 굿미션네트워크 편.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이관순 외.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임성빈. 「현대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 정재영 외.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최병곤. 「종으로서의 교회: 21세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서울: 쿰란출판사, 2000.
- 최용준. 「교회와 지역사회 복지」.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9.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 2014.
- 한국조직신학회 편.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호태석 외. 「청지기훈련을 위한 교회사회복지 실천론」. 안양: 도서출판 갈릴리, 2013.
- Berkouwer, Gerrit Cornelis. 「개혁주의 교회론」.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4.
- Canon, Wiliham.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 Cassel, Paulus. 「랑게주석 사사기 룯기」. 배영철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9.
- Chadwick, Henry.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 Conzelman, Hans.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Crack, Gerald. 「근현대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9.
- Damazio, Frank. 「지역사회를 바꾸는 도시목회」. 최종훈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2.
- Hagerd, Ted. 「지역을 바꾸는 교회」. 예수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Hall, Kall. 「원시교회의 관념에서 본 바울의 교회개념, 신약의 교회 개념」. 전경연 역.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1982.
- Keil, Carl Friedrich & Franz Delitzsch. 「카일델리취 성경주석 신명기」. 최성도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0.
- Küng, Hans. 「교회」. 정지런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4.
- Lange, John Peter. 「랑게주석 민수기」. 김진홍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9.
- Luther, Martin. 「크리스찬의 자유」.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 1965.
- Mofit, Bob.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사람들」. 이은정 역. 서울: 서로사랑, 2005.W
- Neal, Stephan.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Penguin book, 1977.
- Ryken, Leland. 「성경이미지사전」. 홍성희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1.
- Stott, John. 「BST 에베소서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7.
- Young, Kevin D. 「왜 우리는 지역교회를 사랑하는가」.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2. 정기간행물

- 송인용. 「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는가」, 교회성장연구소. 통권 제 208 호 (2010): 19-27.
- 임성규. 「교회의 바람직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 두란노서원. 목회와 신학. 통권 312 호 (2015): 42-45.
- 임성빈. 「교회와 지역 공동체」, 두란노서원. 목회와 신학. 통권 313 호 (2015): 46-49.

3. 논문

- 김명수. 「교회와 지역사회 간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문화선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순원.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교회 기독교 사회복지목회 방안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오영원. 「에베소서 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론」, 호서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정찬자. 「한국교회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신학대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 국내학술지논문.

김병연.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세미나 발표자료」. 2010.

박종삼. 「지역사회의 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기능과 역할」.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Vol.8 2008.

안대현.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Vol.16, 2011.

안치범. 「지역교회의 사회사업 실천과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신학과실천제46호, 2015.

장남혁.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적 교회의 접근법」.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Vol.36, 2014.

5.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창원시 의창구” [온라인 자료]. <http://map.naver.com>. 2017년 월 일 접속.

네이버 지식백과. “명서동” [온라인 자료]. <http://terms.naver.com>. 2016년 접속.

네이버 지식백과. “창원시” [온라인 자료]. <http://terms.naver.com>. 2016년 접속.

디지털창원문화대전. “창원향토문화백과” [온라인 자료]. <http://changwon.grandculture.net>. 2016년 접속

명서전통시장. “우리시장안내” [온라인 자료]. <http://www.msmarket.kr/page/sub12>. 2016년 접속

의창구 홈페이지. “의창구 소개” [온라인 자료]. http://uichang.changwon.go.kr/sub01/sub01_02.jsp. 2016년 접속.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지역 경제동향보고서” [온라인 자료]. <http://changwon.korcham.net>. 2016년 접속

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 “주민등록인구통계” [온라인 자료]. <http://stat.changwon.go.kr>. 2016년 접속.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소개”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05Changwon/01_01.jsp. 2016년 접속.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May 5, 2016

Sang-Young Lee

IRB Exemption 2511.050516: The Effect of a Senior Pastor's Ecclesiology on the Development of Church Growth in Myeong-Gok Church, Changwon

Dear Sang-Young,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exemption category 46.101(b)(2),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101(b):

- (2) Research involving the use of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unless:
- (i)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in such a manner that human subjects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and
 - (ii) any disclosure of the human subjects' responses outside the research could reasonably place the subjects at risk of criminal or civil liability or be damaging to the subjects' financial standing, employability, or reput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change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submitting a change in protocol form or a new application to the IRB and referencing the above IRB Exemption numb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change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The Graduate School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